

전능하시어 세상 모든 만물의 생사를 주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환난 가운데 있사옵나 우리에게 보낸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욱 담대하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으로 덮으사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제26회 복음주의장로교회 총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제26차 미주복음주의 장로교회 총회 총회장 전모세 목사, 부총회장 전지승 목사

미주복음주의장로교회 총회(총회장 신원규 목사)는 제26차 총회를 오렌지힐스교회(담임 전모세 목사)에서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총회)를 세우리니(마 16:18)'라는 주제로 23일과 24일 양일간 열렸다. 23일 오후에 열린 회무처리와 회원점명 개회선언, 회순통과, 전회의록 낭독, 서기보고, 총무보고, 회계보고가 있었다. 이어 신임회원 소개가 있었다. 윤홍규 목사, 샘신 목사, 민승기 목사, 추영욱 목사, 정충일 목사, 정순원 목사, 김조한나 선교사, 신옥희 선교사 등 신임회원 소개가 있었으며 이날 회장단 선거에서 전모세 목사가 총회장으로, 부총회장에 전지승 목사(은유교회)가 단독후보로 추대되어 선출됐다. 유의상 목사(서기)사회로 열린 총회장 이취임식은 신임 총회장 인사가 있었다. 신임 총회장 전모세 목사는 "최선을

다해 사역하겠다. 새임원들과 하나 되어 아름답고 귀하고 많은 분들이 우리총회를 사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에드워드 루더포드 목사(오렌지힐스교회 원로)가 축사했다. 이어 로디 엘렌 찬양사역자가 특송했으며 전제는 자매와 마이카 라이트 형제의 피아노 첼로 이중주 특별연주가 있었다. 이어 신안건토의, 회의록 채택이 있었다. 이날 총회는 김병용 목사(성서장로교회 원로) 축도로 마쳤다. 이번 총회는 특별세미나 시간이 있었는데 이정현 박사(KAPC 개혁장로회 대학 및 신학대학원 총장)가 '목회자의 소명'이라는 주제로 첫날 오후에, 김선중 박사(KAPC 총회신학교 교수 및 상임 교육연구위원장)가 '목회의 도전과 영광'이라는 주제로 둘째 날 특강을 인도했다.

(11면으로 계속)



3면

시론
은희곤 목사



4면

부총회장
방정훈 목사



16면

인터뷰
전모세 목사

총이 없는 사람은 있지만, 한 자루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

BBC, 잇달은 총기 난사 사건 일으킨 현재 미국 총기 문화의 충격적 실상 보도

미국 텍사스주 유벨라에서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이 사망한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면서 총기 소지권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됐다. 관련 데이터는 미국의 총기 문화와 그 영향에 대해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을까?

BBC는 만성화된 미국의 총기 문화가 이제는 '총기 난사 세대'로까지 나아갔다고 짚어주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준다 (America's gun culture).

총기사고는 미국인들의 삶의 일부가 됐다. 1968~2017년 약 150만 명이 총기로 숨졌는데, 이는 1775년 미국 독립전쟁 이후 발생한 미군 전사자 합계를 웃도는 규모다.

2020년 한 해만 놓고 봤을 때는 4만5000명 이상이 총으로 목숨을 잃었다. 자살과 타살 건수를 모두 포함한 수치다. 2015년 대비 25%, 2010년에 비해서 43% 증가했다.

미국에서 총기 문제는 매우 정치적인 사안이다. 총기 규제론자들은 헌법상 보장된 무기 소지 권리를 맹렬히 보호하려는 집단과 대립하고 있다.

미국 내 총기 소유자 수

전 세계 개인들이 얼마나 많은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지 계산하는 건 어렵다. 하지만 스위스의 연구 프로젝트인 '스몰 암즈 서베이'(Small Arms Survey)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 세계 총기는 3억9000만 정으로 추산된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 견주어 보면 1인당 총기 소유 비율이 월등히 높다. 100명당 120.5정의 총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11년 88정을 보유했을 때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기도 하다.

최신 자료는 미국인의 총기 소유 비율이 지난 몇 년간 급

격히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지난 2월 '미국 내과 연례 회보'(Annals of Internal Medicine)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2019년 1월~2021년 4월 사이 750만 명이 처음으로 총기 소유자가 됐다. 전체 인구의 3%를 밀도는 규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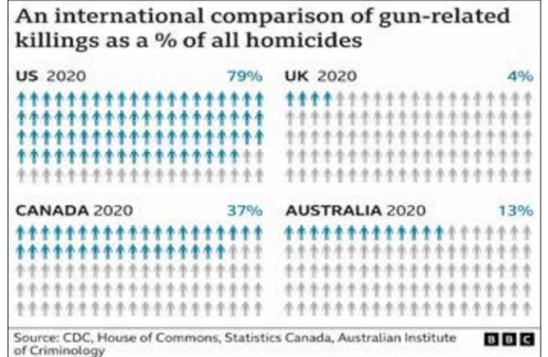
이는 어린이 500만 명을 포함해 1100만 명이 총을 접할 수 있는 환경에 더 노출됐다는 얘기다. 조사 기간 신규 총기 소지자의 절반가량이 여성이었고, 40%는 흑인 또는 히스패닉계였다.

2021년 '미국 소아과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가 발표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어린이 총기 부상자가 늘어난 것은 총기 소유자가 증가한 것과 연관이 있다. 어린이 총기 부상자 중엔 어린이가 스스로 사고를 낸 경우도 있다.

유형별 총기 사망 사고 비율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20년 한 해 동안 총 4만 5222명이 총기 관련 부상으로 사망했다고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과 총기를 이용한 살인이 언론의 주목을 받지만, 전체 총기 관련 사망자 가운데 54%에 해당하는 약 2만4300명은 자살한 경우였다.

2016년 '미국 공중 보건 저



널'(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에 실린 한 연구는 총기 소지자가 많은 주일수록, 남녀 모두의 총기 자살 건수가 증가했다고 전했다. 미 의회에 더 강력한 총기 규제를 촉구하는 단체들은 이와 같은 통계를 근거로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데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총기 소지 규제를 완화하는 데는 적은 자원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타국과 비교해 본 미국의 총기 사망 건수

CDC에 따르면, 2020년 전체 사망자 중 약 43%인 총 1만 9384명이 살인으로 목숨을 잃었다. 2019년에 비해 34%, 10년 전에 비해서 75%나 늘어난 수치다.

같은 통계에 따르면 하루 총기로 인한 사망자 수는 약 53명으로 집계된다. (3면으로 계속)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chpress.net | 323-737-7699, 800-559-0451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기초반: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중급반: 매주 금요일 오전 10:30
문 의: 714-470-4563
말씀가르시기
말씀을 묵상하며 캘리를 배우는 캘리그라피 클래스가 O.C.와 L.A. 지역에서 오픈되었습니다.

Jama

중보기도 컨퍼런스

SOUTHERN CALIFORNIA

팬데믹으로 움츠렸던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사도행전 시대의 교회와 같이 뜨겁게 타오르기를 소원하며 중보기도에 대해 배우고 싶은 분, 교역자, 사모, 교회 중보기도팀 등 자녀와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은혜한인교회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 (714) 446-6200
2022년 8월 10일(수) 4 PM - 12일(금) 10 PM

강사: 한기홍 목사, 호성기 목사, 위성교 목사, 허연행 목사, 강민수 목사, 안지웅 목사, 안지영 목사, 김황신 목사, Samuel Han, 김춘근 교수, 배성호 목사, 강순영 목사

등록비 \$100 (교재 + 식사비 포함)
등록마감: 2022년 7월 30일
뒷면에 있는 참가신청서 작성하셔서 등록비와 아래 우편주소로 보내주시거나 온라인 (IPC.JAMAPRAYER.COM)에서 등록하시고 연결되어 있는 페이팔(Paypal)로 등록비를 내주시십시오.

숙소: 숙소가 필요하시면 은혜한인교회 근처 호텔에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예약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처: JAMA: (903) 804-4016 강순영 목사: (310) 995-3936
이메일: conference@jamaglobal.com
우편주소: 22392 FM 16 W., Lindale, TX 75771
IPC.JAMAPRAYER.COM

발행인 칼럼

물 없는 샘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지난 5월 24일 텍사스주 유베타에 위치한 톱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충격 사건은 미국을 다시 한번 큰 충격에 빠트렸다. 당일 오전 11시 32분 학교에 도착한 범인은 총을 쏘기 시작하면서 4학년 교실로 침입해 문을 걸어 잠그고 대학살극을 벌인 것이다. 꽃 피우지 못한 채 떠난 19명의 어린이와 끝까지 아이들을 지키려 했던 2명의 교사, 무엇보다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이웃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충격적인 소식에 더해져진 보도는 경악, 그 자체였다. 보도에 따르면 11시 35분 신속히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12시 50분까지 총을 들고 복도에서 우두커니 대기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학살극이 아니라 인질극으로 오인했다는 현장 책임자의 판단 착오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어린이들이 여러 차례 친구들이 죽어간다고 다급히 전화한 사실과 교실 안에서 끝없이 들려왔던 총소리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생명을 다루는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요 그들도 그런 사명감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길을 걸어왔으리라. 그러나 가장 필요한 때에 그곳에는 적어도 한 시간여 동안 경찰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경찰관은 없었다.

메말라가고 있다. 대한민국에 가뭄이 들어 농지들이 메말라가고 있다. 메말라간 소식이다. 농민들의 마음도 바짝 타들어 갈 것이다. 저수지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물이 바닥이라고 한다. 홍수와 가뭄 조정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에 평소엔 물을 가두어 두었다가 올해처럼 농사짓기 어려울 때 활짝 열려야 할 4대 강이 여러 보(堰)들은 녹조현상 자연 회복 등의 이유로 이미 물을 많이 쏟아내었다고 한다. 가장 필요한 때 저수지와 보(堰)는 자기들 이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이 엠 샘(I am Sam)이라는 영화가 있다.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이지만 아직 마음에 남아 있다. 아이를 낳고 퇴원하는 날 엄마는 도망가고 '샘'이라는 이름을 가진 정신지체 아버지가 딸아이를 홀로 떠맡게 된다. 기본적으로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 하는 아버지가 과연 어린 딸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겠는가 의구심으로 사회 각 기관이 아버지와 딸을 떼어 놓으려는 작업을 벌인다. 그 아버지에게는 지식도 없었고 여러 가지 행동들은 실수 연발이지만 단 하나 분명한 것이 있었으니 자기 딸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었다.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겼다. 지식인도 교육자도 행정가도 경찰도 재판관도 변호사도 그리고 모든 조건을 가진 양부모와 그 집의 환경도 넉넉히 이겼다. 그 아버지는 외친다. '아이 엠 샘(I am Sam)' 그렇다. 여기서 아버지는 자기의 샘이라는 이름은 다름 아닌 '사랑(Sam=Love)'이라고 외치고 싶었다. 아버지 샘은 사랑으로 딸을 누구보다 잘 키웠다.

누구도 샘에 가서 다른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다. 샘 앞에서 맛난 떡을 달라고 하며 멋진 옷을 구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샘은 물만 내놓으면 된다. 그런데 성경에 '물 없는 샘'이라는 구절이 있다. 사람을 비유한 것이다. 샘인데 물은 없다고 한다. 사명은 있으나 그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못 하는 사람을 지적하는 수치스러운 용어가 아니겠는가. '물 없는 샘'처럼 자신의 이름에 합당한 사역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하늘의 경고를 들어보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벧후 2:17)

“멋지지”는 않지만 신실한 교회가 오래 유지된다!

TGC, 브레트 맥크레켄, 마르스힐, 힐송 교회 몰락에서 배우는 회개와 교훈 소개

“한때 잘나가는 기독교의 상징 같았던 힐송, 미국에서 발판을 잃었다.”

위 글은 '뉴욕 타임스(NYT)' 종교 전문 기자인 루스 그레이엄(Ruth Graham)이 최근 헤드라인으로 기고한 글이다(Hillsong, once a leader of Christian cool, loses footing in America).

“복음연합(TGC)” 편집장 브레트 맥크레켄은 슬프게도 이 기사를 예측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은 세상이 되었다고 말한다. 문신을 한 유명인 목사는 젊은이가 봄비는 나이트클럽 같은 교회든, 거의 모든 “잘나가는(cool) 기독교 지도자”의 열기는 지금 매우 빠른 속도로 사그라지고 있는 것 같다.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멋진 것은 일시적이다. 인기가 있다는 말, 그러니까 패션이라는 것은 패션이라는 말이 가진 의미에 걸맞게 무척 빨리 구식으로 바뀌기 마련이다.

이것이 맥크레켄이 쓴 책 Hipster Christianity: When Church and Cool Collide(유행에 앞서가는 기독교: 교회와 멋짐이 충돌

할 때)에서 주장한 것처럼, 멋짐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교회와 목회자에게 어리석은 일이 되는 많은 이유 중 하나이다. 단기적인 유행을 우선시한다면, 당신의 사역 또한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다. 특정 세대나 문화적 맥락의 변덕스러운 취향에 “맞추고” 싶어 하고, 또한 매력적으로 보이는 데에 너무 신경 쓴다면, 기독교의 초월성과 복음의 예언적 능력은 축소되고, 결국 복음은 시류(zeitgeist)의 유행에 맞게 왜곡될 것이다. 현실 적합성에 초점을 맞춘 기독교는 그 자체로 쇠퇴의 씨앗을 뿌린다. 그것은 나쁜 생각이다. 이런 기독교가 잘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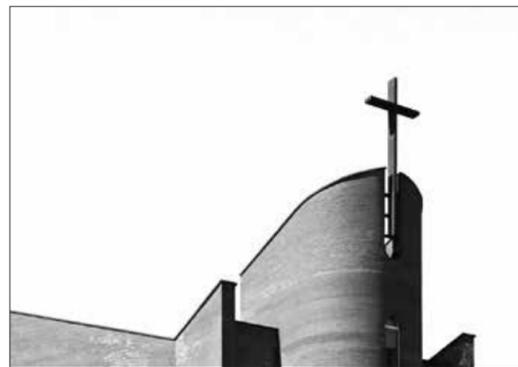
결국 맥크레켄은 아무리 예측 가능하고 무분별할 정도로까지 “멋진 교회”라는 방주가 행여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마르스힐(Mars Hills)에서 힐송(그 외 수많은 다른 것들)에 이르기까지, 실패하는 교회를 보는 것은 비극이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보며 기뻐하지 않는다. 대신 통곡하고 그 실패에서 배워야 한다고 단언한다(In Praise of the Boring, Uncool Church).

“최신 유행하는 드레스 대신 아웃렛에서 산 드레스를 입더라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름다운 가치가 있다”

우선, 이러한 헤드라인을 통해 우리는 현실 적합성(relevance)이 존경(reverence)을 대신할 수 없으며 오히려 존경을 손상시킬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호감 얻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최신 유행을 따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신실하게 사는 것이다. 시대의 수준에 맞춰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는 것이다.

고백과 회개, 성경말씀의 온전한 권고에 매일 순종, 영적 훈련에 대한 조용한 헌신과 같은 것은 결코 최첨단이 아니며 “최신 유행 목사”(hypepriests)가 등장하는 잡지(GQ)의 모델이 되기도 적절하지 않은 항목이다. 그러나 이것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같은 방향을 지향하는 장기적인 순종”의 믿음을 구성하는 항목이다. 그리고 오늘날 하루가 다르게 문을 닫는 유행 지향의 교회와 파멸하는 유명 목사를 목격하는 그리스도인이 더 깊이 깨달아야 하는 사실이다.

지루하고, 멋지지 않지만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실제로 가장 좋은 교회일 수 있다. 소비자 취향에 무신하고 트위터가 주는 아이디어에 무덤덤한 기독교가 바로 내가 원하는 종류의 믿음일 것



이다.

그러나 이런 교회가 바로와 닿지는 않는다. 게다가 유명 목사의 설교를 갈망하며 아래에서 벌이는 록 예배의 열광적 찬양에 빠진 이심대로 봄비는 큰 교회는 난공불락의 승리처럼 보이기도 한다. 미국 교회에서 성공을 위한 지표로 우리는 워낙 오랫동안 시장주의 자본주의의 지표(큰 것이 항상 더 좋고 청중은 언제나 왕이다)를 반영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멋진 교회”는 언제나 멋진 아이들로 교회 천장까지 가득 차 있다고 가정한다. 그런 교회야말로 통하는(working) 교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말로 그런 교회가 통하는 교회라면, 이 “멋진 아이들” 중 많은 이들이 왜 고작 십 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체를 겪을까? 왜 결국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날까? 나는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봤다. 힐스데 교회 운동의 장기적 결과는 참담하다.

면, 지지는 건 당연하다. 당신이 해체 과정을 겪는다는 것도 놀랍지 않다. 그러나 더 좋은 길이 있다.

모델 같아 보이는 사람들로 가득 찬 멋진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가는 사람으로 가득 찬 신실한 교회를 찾으라.

모든 사람이 스타일과 음악에서 같은 취향을 공유하는 교회 대신,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를 찾으라.

(당신이 절대 만나지 못할 것 같은) 가장 카리스마 있는 유명 목사가 있는 교회 대신에 예수님이 가장 큰 스타인 교회, 그리고 겸손하고 친근하며 크게 두드러지지 않지만 삶과 사역에서 모범을 보이는 목사가 있는 교회를 찾으라.

과거와의 불연속성이 미덕인 “재창조” 또는 “신선한” 기독교를 추구하는 교회(“우리는 당신 할머님이 다니던 그런 구닥다리 교회가 아닙니다!”) 대신, 기독교의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고 또 기념하는 교회, 또한 과거와의 연속성을 중시하는 교회를 찾으라.

편안함을 충족시켜 주고 항상 긍정적이지만 결코 당신을 도전하지 않는 교회 대신, 당신을 성장하도록 밀어붙이기에 불편할 수 있는 교회, 곧 “구도자를 향한 민감성”보다 거룩함이 더 중요한 교회를 찾으라.

(3면으로 계속)

신실함) 멋짐

이런 교회에 속해 있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김재상.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lachpress@gmail.com.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축. 한인 신학교 최초로 교육학 철학박사과정 TRACS 인가. 학위과정: 교육학 철학박사(PhD in Educational Studies), 교차문화학 철학박사(PhD in ICS), 선교학 박사 (D.Miss), 목회학 석사 (M.Div), 기독교 교육학 석사(MA CE), 교차문화(선교학)석사 (MA ICS), 기독교 상담학 석사 (MACC), 신학사 (BA), 기독교 상담학 학사 (BACC). 이벤트1. 교육학 철학박사과정-장학금. 이벤트2. Early Bird 장학금. 이벤트3. 화상입학설명회. 2022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중.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 입학 문의 Email: admissions@gm.edu 웹사이트: www.gm.edu

총이 없는 사람은 있지만...

(1면에서 계속)
아울러 살인 사건 중 79%에 총기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비교해 현저히 높은 비율이다.

대규모 총기 사망 사건의 치명도

'총기 난사 사건'(mass shootings)은 국제적 관심을 끌지만, 이로 인한 사망자를 추적하기는 더 어렵다. 미국에선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을 하나로 정의 내리기가 어려워 그렇기도 하다.

지난 10년간 미연방수사국(FBI)은 "개인이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살인이나 살인 시도를 적극적으로 실행한 경우"를 '총기 난사범에 의한 사건'(active shooter incidents)으로 규정해 피해 규모를 추적해왔다.

FBI에 따르면 2000~2020년 미국에선 '적극적 총격범에 의한 사건'이 345건 발생해 1024명 이상이 숨지고 1828명이 다쳤다.

2017년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은 50명 이상이 사망하고 500명이 부상을 입어 최악의 난사 사건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총기 난사 사건 사망자는 30명 미만에 머문다.

누가 총기 규제를 지지하는가?

총기사고의 여파로 광범위한 사회적 공분이 일곤 하지만 여론은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갤럽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총기 규제 강화를 지지하는 응답자 비율은 2014년 조사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응답자의 52%만이 더 엄격한 총기 법을 원한다고 답했고, 35%는 현상 유지를 원했다.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답한 비율도 11%를 차지했다.

미국의 총기 소유 문제에 대한 의견은 보통 지지 정당에 따라 극렬하게 갈린다.

앞서 언급한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는 거의 만장일치로 더 엄격한 총기 규제법을 지지했다. 이들 중 91% 가까이가 총기 규제법 강화에 찬성한 것이다.

반면 공화당 지지자는 24%만이 엄격한 총기 규제법에 동의했다. 민주당도 공화당도 지지하지 않는 경우 45%가 엄격한 총기 법을 원했다.

미국 내 일부 주에선 공격용 총기 소유를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규제하기도 했다. 주마다 관련 법이 상이하지만 한 예로 캘리포니아주에선 드문 예외 상황도 아니면 공격용 무기를 소유할 수 없다.

반면 조당적인 지지를 받는 총기 규제 방안도 있다. 정신 질환자나 "주의" 대상자에게 총기 판매를 규제하는 방안이 그렇다.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이들은?

전미총기협회(NRA)는 수년간의 재정 문제와 내부 갈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내 가장 강력한 총기 로비 단체다. NRA는 막대한 자금력

을 바탕으로 미국 의회의 총기 관련 정책에 영향력을 끼친다.

지난 1월 NRA는 일부 고위직 인사의 사기 사건과 관련해 파산을 신청했다. 그렇지만 이후에도 NRA는 "수정헌법 2조에 반대하는 활동에 대한 대처, 총기 안전 및 훈련 촉진, 미국 전역의 (총기 관련) 공공 프로그램 발전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NRA와 다른 총기 이익단체들은 선거철마다 총기 소지 옹호 메시지를 내보내는 데 꾸준히 돈을 써왔다. 이들의 로비 금액은 총기 규제 단체의 자금을 항상 웃돌았다.

총기 소지 자격에 대한 대부분의 규제를 철폐한 주도 다수 있다. 예를 들면 2021년 6월,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주민들이 면허나 허가 없이 총을 소지하는 "무허가 총기 휴대 법안"에 서명했다.

비슷한 예로 조지아주를 들 수 있다. 지난 4월 12일 이곳은 미국에서 총기 휴대와 공개적인 사용을 전면 자유화한 25번째 주가 됐다. 즉 조지아주에선 누구나 면허나 허가 없이 총을 소지할 권리가 있게 된 것이다.

NRA의 지도부는 조지아주의 총기 소지법 실행을 지지하며 "수정헌법 2조를 위한 기념비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에선 수정헌법 2조에 따라 범죄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총기 사용을 권리로 여기는 전통적 인식이 있다. 수정헌법 2조는 "잘 구울된 민병대는 자유를 지닌

주(州)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하는 미국 국민의 권리는 침해받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교육 멀티플랫폼 전문 그룹 '에듀케이션위크'의 집계 따르면 미국 내 교내 총격 사건은 올해만 27건에 이른

다. 최소 67명이 죽거나 다쳤다.

'에듀케이션위크'가 조사를 시작한 2018년 이후 최소 1명이 숨지거나 다친 교내 총격 사건은 119건에 달했다. 그 결과, 오늘날 청소년들이 "총기 난사 세대"라는 불행한 꼬리표를 얻을 정도로, 총기 난사 사건이 빈번하다.

그러나 이렇게 수많은 사람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정치인들과 지지자들은 여전히 총기 소지에 호의적인 가운데, 되풀이되는 총기 사건은 총기 규제에 대한 미국 여론을 크게 흔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텍사스 총기 난사범이 "아이들의 미래를 훔쳤다"며 몇몇 의원들이 "생명을 구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반대하면서도 총격 사건마다 빈말을" 내놓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공화당 출신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 상원의원은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이 "악행이며 대량 살상"이라고 평했으며, 총기 규제 정책을 이러한 사건을 막지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다. 기독교 신앙의 삶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충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변하지 않는 순종, 천천히 불타오름, 조용한 근면 등 세상의 삶과 완전히 달라야 한다. 이런 형태의 구식 기독교가 인스타그램에서 입소문을 타거나 유명 트렌드 잡지에 소개될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오로지 그 길만이 그리스도인을 성숙하게 성장시킨다. 오로지 그 길만이 지난 2천년 동안 수많은 성도에게 그랬던 것처럼 길고 꾸준하고 또한 유익한 믿음의 경주를 하도록 도울 것이다. 나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가는 성도 가운데 포함되기를 기도한다.



6·25를 평화의 날로! (1)



은하곤 목사
(평화드림포럼 대표)

「마오쩌둥이 1958년 쓰촨성 농촌을 시찰하다가 배고픈 인민들이 먹어야 할 곡식을 참새가 쪼아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오쩌둥은 참새를 쳐다보며 '저 새는 해로운 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오쩌둥의 한마디에 '참새 섬멸 총지휘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얼치기 지식인들은 '참새가 사라지면 70만명이 먹을 수 있는 곡식을 더 정확하게 된다'며 비뚤을 잡아오자'며 시베리아 벌판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자연생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 자연생태계를 교란하였습니다. 각종 감염병의 창궐도 자연생태계를 파괴한 인간이 받은 업보입니다. 하나님은 자원을 다스리라고 했지 파괴하고 착취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떠온글).

공감의 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핵심은 "평화"입니다. '평화'는 '平-균형, 和-어울어짐' 즉 '관계성'입니다. 사람과 자연의 평화, 사람과 사람의 평화, 공동체와 민족과 국가 간의 평화 등등 '더불어 함께 사는 일, 균형과 조화'입니다. 6월은 한반도에, 한민족에게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달이기 때문입니다. 올해가 1950년 6·25전쟁 발발 72주년이요,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휴전 69주년이 되었습니다. 휴전이 이뤄진 지 70여 년 동안 우리는 상호 불신과 미움과 증오의 평행선을 달려, 오늘날 한반도의 정세는 핵의 위협과 미사일이 오고 가는 전쟁 위기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평화'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상황과 정반대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여러 원인과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저는 광의로 가장 먼저 우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한반도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북한지역에는 원산과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키셨고 남한지역에는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한국기독교 부흥 시대를 열어주셨건만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평화를 연습하고 실천해내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통감 회개하고 한반도, 한민족의 평화를 연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번과 다음번 시론에 그 이야기들을 이어 담아 내 봅니다. 가장 먼저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란 무엇인가? 에 대한 '공감형성'입니다. 먼저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남한과 북한은 엄연히 다른 2개의 국가라는 현실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양방 모두 무력통일, 흡수통일, 평화통일 즉 국가와 국가간의 통일을 축으로 방법을 논했다면,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국가와 국가간의 평화를 축으로 한반도 통일을 논하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남북한 통일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남북한이 먼저 함께 평화를 연습하고 실천하여 길을 닦아나가는 일들이 통일 이전에 우리가 마땅히 선행되어야 할 일들이라는 맥락입니다. 평화에는 여러 개념들이 있지만 특별히 남북한 같이 적대적 구조 속에서의 한반도의 평화는, 분쟁이 없는 상태에서의 평화가 아니라 분쟁을 겪고 있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상존, 공존, 상생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평화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한국 여권 가지기 자유롭게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 여권 갖고 자유롭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길, 그러한 길을 닦으며 나가는 것 그리고 한반도에서 한민족으로서 세계를 향해 동반성장을 함께 꿈꿀 수 있다면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의 축적을 바탕으로 평화로 통일을 그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필자는 이러한 꿈을 꾸며 '사단법인 평화드림포럼 (PEACE DREAM FORUM, PDF, www.peacedream.org)'을 시작했습니다.

(4면으로 계속)

“멋지지”는 않지만 신실한...

(2면에서 계속)
이 마지막 부분은 특히 나 자신의 믿음에 변화를 가져왔다. 내가 쓴 책 Uncomfortable(불편한)에서 나는 여기에 관해서 썼다. 그리스도인 제자라면 결코 피할 수 없는 어색함과 불편함과 대가를 가까이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겪는 어려움에 놀라지 않을 것이다. 힘들더라도 지역 교회 생활에 충실하면, 우리에게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비록 멋지지 않지만 아름다운 지역 교회의 현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지고 지속 가능해질 것이다.

이것은 내가 "멋진 교회"에 관한 글을 썼을 때 독자들(종종 이전에 그런 교회를 다녔던 히프스터들)로부터 받은 피

드백과 일치한다. 그들은 멋지지 않고 과대광고를 낱말하지 않는 교회에서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더 깊어졌는지를 들려 주었다. 지난주에 나는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

슬프게도 "멋진 기독교"의 일부가 되려 했던 대부분의 내 친구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 나는 여태 다녔던 교회 중에서 지금 가장 "지루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가족의 일원으로서 지금보다 더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확고한 가르침을 통해 믿음이 가장 많이 성장했습니다.

또 다른 독자는 이렇게 썼다. "멋진 교회"에 대한 나의 열망은 복음에 무언가를 첨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교회 내 사교 생활을 통

해서라도 나 자신이 근사하다고 느껴야만 했습니다."

용기를 북돋아 주는 간증이 다. "멋진 교회"를 다니던 일부 베테랑들은 해체 과정을 겪거나 또는 교회를 완전히 떠나지만, 한편에서는 비록 최신 유행하는 드레스 대신 아웃렛에서 산 후진 옷을 입더라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름답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어지러운 정도로 쉽게 사라지는 트렌드의 세계에서 브랜드, 유명인사, 사회 운동, 제도, 사상 등 너무도 많은 것이 도약하자마자 바로 사그라드는 것 같다. 믿음을 소비주의 세상 속 수많은 유행 중 하나로 오해하는 순간, 기독교는 틱톡에서 퍼져나가는 최신 유행어처럼 깨지기 쉽고 번덕스러운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

기독교 신앙의 삶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충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변하지 않는 순종, 천천히 불타오름, 조용한 근면 등 세상의 삶과 완전히 달라야 한다. 이런 형태의 구식 기독교가 인스타그램에서 입소문을 타거나 유명 트렌드 잡지에 소개될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오로지 그 길만이 그리스도인을 성숙하게 성장시킨다. 오로지 그 길만이 지난 2천년 동안 수많은 성도에게 그랬던 것처럼 길고 꾸준하고 또한 유익한 믿음의 경주를 하도록 도울 것이다. 나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가는 성도 가운데 포함되기를 기도한다.



36th Anniversary

달라스 캠퍼스 편, 입학 안내

Dallas Site에 오픈하는 과정

Dallas 지역에서 등록하는 학생들을 위한 I-20 직접 발행

ESL Program ESL, Aviation English

Pilot Certificate(FAA) 조종사라이선스, 정비사라이선스

Diploma 신학, 기독교교육, 크리스찬카운셀링, 선교, 리더십

Degree Programs 학위과정

B.A. 신학, 기독교교육

M.Div. 목회, 선교목회, 상담목회, 교육목회, 목사리더십

D.Min. 카운셀링, 교육, 선교, 목회신학, 목사리더십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 I-20 혹은 J-1 연구원, 교환교수, 인턴십을 위한 DS-2019 자체발행
2.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소집특강 및 Online 으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 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On-line Programs or Main Campus

국제항공 대학(원) BS, MBA, Ph.D.

경영 대학(원) BA, MBA, Ph.D.

국방 대학원 MBA, Ph.D.

교육 대학원 MA TESOL, MA Education, Ph.D.

리더십 대학원 Doctor of Leadership, Ph.D. in Leadership

상담심리 대학원 MA, Ph.D.

음악, 문화예술 대학원 MM, DMA, Ph.D.

신학 대학(원) BA, M.Div, D.Min, Ph.D.

학교소개

미국 연방정부 교육부의 정규대학교 인준 USDE & CHEA

•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www.ope.ed.gov/accreditation

• 미국 대학 학력인정기관 (CHEA) www.chea.org

• ABHE - Accredited Status

• 국제비즈니스 학점 인정기관 (IACBE) Educational Member.

• 국제 항공 안전협회 ISASI 회원대학교.

• NC-SARA (www.nc-sara.org) 인준대학교

• Midwest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MIRI) 연구소



Midwest University 국제항공대학

항공 경영학사 과정

항공경영, 조종사, 정비사, 항공운항사, 승무원

FAA Certificate - 국제 조종사, 정비사 라이선스 과정

MBA - 항공 안전보안

Ph.D. - 국제항공 경영 리더십

Midwest University- Dallas

4849 Spartan Dr. Denton, TX 76207

usa@midwest.edu

www.midwest.edu (636) 327- 4645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교회)



생명보다 귀한 것

많은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인플루언서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일까요?

한국 장로교에서 존 칼빈으로 불리는 장 칼뱅은 프랑스 출신의 개신교 사상가이고 개혁교회의 창시자였습니다. 그의 개혁운동에 동참한 프랑스 개신교인들(Protestants)을 위그노(Huguenots)라고 부릅니다.

16세기부터 개신교인이라든가 유만으로 로마 가톨릭교회로부터 온갖 박해를 받았던 위그노들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예배당이 폐쇄되었습니다. 모든 법적 지위, 재산권, 상속권을 박탈당했습니다. 모든 공직에서 배제되었고 가톨릭 교인과 혼인도 할 수 없었습니다. 투옥, 고문, 추방, 화형을 당했고 죽은 후에도 묘지에 정식으로 묻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끝까지 투쟁했습니다.

위그노들은 왜 숱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앙의 자유를 포기하지 못했을까요? 위그노들은 문자적으로 하나님께 드리

는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동굴에 숨어 예배를 드렸고, 감옥에서 예배를 드렸고, 광야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동식 강대상과 성찬식 용기를 마련해서 예배를 드렸고 품에 감출 수 있는 작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예배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초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통해 환난과 박해를 이겨낼 힘을 얻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배를 통해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성직임을 깨닫고 성실과 근면으로 일했습니다. 어떤 핍박 속에서도 예배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위그노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역사에 끼친 영향력은 놀랍습니다. 박해를 피해 유럽으로 망명한 그들은 금융, 교역, 시계 제조업, 모직물, 견직물, 제지 산업 등 유럽의 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방직 산업과 우리 제조업에 종사함으로써 산업혁명을 일으

킨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온 후손들 중에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조지 워싱턴, 미국 독립선언문 작성자인 벤저민 프랭클린,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을 4번 지낸 프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 등 무려 7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위그노들은 당대와 후대에 큰 영향을 끼친 영적 인플루언서들이 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배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로마의 카타콤과 터키의 카파도키아와 같은 지하 동굴에 숨어 살았습니다. 어두운 지하 동굴에서 태어나 그 지하 동굴에서 죽는 자신들의 운명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모진 고통과 박해를 버텼습니다. 당대와 후대 사람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오늘은 사는 우리도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에서 함께 모일 수 없게 되었지만, 우리는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대면 예배(오프라인 예배)에서 비대면 예배(온라인 예배)로, 때로는 야외예배로, 그리고 지금은 온라인 예배(온라인과 오프라인) 등등.. 상황이 따라 예배의 형태는 계속 바뀌었지만, 온 성도들은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대와 후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인 인플루언서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 장소, 예배의식, 혹은 방법이 예배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자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온 맘 다해 그분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최선을 다해 교회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여야 합

니다. 주님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모두 지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우리도 위그노들처럼, 로마의 카타콤과 터키의 카파도키아 그리스도인들처럼 예배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깁시다.

위그노들처럼 예배가 나의 삶의 초점인지 점검합시다. 온라인 예배이든 오프라인 예배이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 더 노력합시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므로 많은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인플루언서가 되어 예수님을 전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푸/른/초/장

방정훈 목사
(큰기쁨교회)



대화하기 싫은 사람, 대화하고 싶은 사람

대화를 나누기에 부담되는 사람들이 있다.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사람, 간단한 이야기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장황하게 늘어놓는 사람,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말투의 사람, 자신이 컨설턴트가 된 것처럼 매번 가르치려 드는 사람, 직설적이고 공격적으로 말하는 사람, 매사에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 관심사만 이야기하는 사람, 흑백 논리로 따지며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무슨 이유인지 사소한 말에도 짜증 내는 사람, 상대방의 민감한 곳을 헤아리지 못하고 센스 없이 말하는 사람, 아닌 척 자연스럽게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 결과 속이 다른 가식적인 사람, 자리에 없는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 어떠한 일들을 과장되고 부풀려 말하는 사람, 상대방이 침을 삼키는 사이 치고 들어와 도중에 말을 끊는 사람, 속은 뻔한데 듣기만 하는 사람, 들으려 하지 않고 혼자만 말하는 사람 등이다.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머와 위트가 있고, 생각이나 성향이 다르더라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기본 상하지 않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과는 대화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허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약 3:8),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다(약 4:2)'라는 말씀처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의 성격뿐만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는 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가 자라온 가정이다. 그런데 유교적 사상을 가지고 있던 우리

본토 친척 아버 집은 보편적으로 잘 살지 못했다. 원래 '잘 살다 못 살다'라는 말은 물질의 유무와 관련 있는 말이 아니라, 관계성과 관련 있는 말이라 한다. 성경적으로도 잘 사는 집이란 '화목한 가정'을 의미한다(잠 17:1).

일반적으로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은 강한 경향이 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위기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자격지심에 시달리거나 자만심에 빠지기 쉽다. 자존심이 상할 때 나를 지켜주는 것은 건강한 자존감인데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자존감이 낮다. 그러나 신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갈 2:20)이기 에 우리의 자존감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상속받지 못한 예쁜 말

보편적으로 잘 살지 못했던 본토 친척 아버의 집에서 살 때 실수로 물을 었지르거나, 접시를 깨뜨릴 때 우리는 엄청난 축복(?)의 말을 들어야 했다. 그때에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Are you OK?' 또한 술을 사랑하셨던 우리의 아버지들은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식

의 말들은 극도로 아끼셨고, 당근보다 채찍에 가까운 언어를 많이 사용하셨으며, 좀 더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하셨던 어머니들은 최상위의 율법어(?)인 '잔소리'를 즐겨하셨다. 뿐만 아니라, 두 분들 간에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면 고성과 함께 험한 말들이 오고 간 기

억들이 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예쁜 말을 잘 배우지 못한 경향이 있다.

인간에게는 기질(Temperament)과 성격(Character)과 인격(Personality)이 있다. 기질은 DNA에 찍힌 도장 같이 선천적이어서 바꿀 수 없다. 성격은 후천적이어서 노력하면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인격은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에 성숙을 위해 많은 경험과 훈련이 필요하다.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성격처럼 미운 말도 후천적으로 습득된 것이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노력하면 예쁜 말로 바꿀 수 있다.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날 때

성인이 되고 경제적 능력이 생기면 대부분의 경우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난다. 그러나 이는 떠날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하기보다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는 사랑하게 된 두 사람이 그들의

집을 세운다. 대부분의 경우 남자는 외모를 많이 보고, 여자는 능력을 많이 본다. 그래 놓고선 성격차이 때문에 가장 많이 헤어진다. 이런 결과만을 놓고 보면 외모나 능력보다 성격이나 성품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

외모가 마음에 드는 자매를 발견했다. 그 오빠는 능력이 있어 보인다. 두 사람에게 는 도파민이 충만하게 솟아난다. 이 호르몬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지칠 줄 모르는, 아무리 먼 길을 데려다주어도 피곤이 느껴지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랑의 호르몬'이라 부른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도파민의 과학적 유효 기간이 길어

예쁜 말이란 어떤 말인가?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 위로와 격려의 말, 공감하는 말 그리고 격한 동의의 반응' 등이다. 인간에게는 결핍이라는 공간이 있고, 포용이라는 공간이 있다. 수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결핍으로 말미암아 생성된다. 결핍의 공간이 채워져야 포용의 공간이 넓어진다. 미운 말은 잘 살지 못했던 본토 친척 아버 집에서 전수받지 못했던 예쁜 말에 대한 결핍일 수 있다. 희망은 없는가?

창조의 능력과 공간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이

간은 만남을 통하여 꿈을 꾸지만, 만남을 통하여 꿈이 깨지기도 한다. 그러나 주님과과의 만남은, 말씀과의 만남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꿈을 꾸게 한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으키는 것도 말씀이고, 미운 말을 사용하는 혀를 제어시키는 것도 말씀이다.

모르핀의 200배 진통 효과를 가진 것이 엔돌핀이고, 엔돌핀의 4000배 효과를 가진 것이 다이돌핀인데 이것은 감동을 받을 때 생성된다고 한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호흡이다. 찬양과 기도와 특별히 말씀의 감동을 주는 예배는 믿는 자들의 숨통이다. 말씀에 은혜를 받고 감동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 질 때 우리를 죽이려 했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자유 함을 누리게 되고, 받아들일 공간도 내보낼 공간도 넉넉해진다.

예쁜 말을 기억하고 사용하라

민수기 3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진군하게 될 노정들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신다(민 33:2). 기록의 목적은 기억하게 함이다. 무엇을 기억하게 함인가? 그 노정의 출발점인 유월절이었다(민 33:3). 언제 어느 가운데 질서가 부여되고, 고향이 총만으로 채워졌으며, 빛이 흑암을 몰아냈다.

빛이 흑암을 몰아내면서 생겨난 것이, 좀 더 정확하게는 점차 드러난 것이 '공간'이다. 타락 전 창조의 때에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었던 공간이 사람의 영혼 가운데 주어졌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품에서 주신 혀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서로를 축복하였다(약 4:9).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었다(약 4:2). 본향 된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다.

유일한 희망, 말씀과의 만남

dieforlogos@gmail.com

타락 이후 오늘날까지도 변함없이 말씀은 빛이 되어 우리 마음에 공간을 만들어준다. 인

예쁜 말하기

약 3:6

야 2-3년이다. 도파민에 취해 있을 당시 서로의 모습은 본모습이 아니다. 먹거리조차도 상대에게 맞추던 철저히 헌신된 모습은 나나 그대의 본모습이 아니었다.

도파민의 효력이 사라져 피차간에 신비감이 열어질 무렵, 남자는 말도 안 듣고 반복적으로 사고 치고 실수하고도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다. 여자는 반복적으로 잔소리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도 잘못을 모른다. 이 무렵 자신들도 모르게 영혼 깊이에 베어있던 본토 친척 아버 집의 언어들이 서로를 향해 날카롭게 쏟아지기 시작한다. 본문의 말씀처럼 혀로 서로의 인생에 불을 지르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한다. 해결되지 않는 불만들은 쌓이고 쌓여, 곱지 않은 말투가 서로에게 던져진다. 그 사람의 본토 친척 아버 집을 신중히 살피어야 했는데, 그럴 기회는 땅이 주어지지 않았고, 상견례할 때 잠깐 본 경우가 허다하다.

예쁜 말

저희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희생들을 어찌 우리가 잊겠습니까? 절대 잊어서도 안되고 잊혀져서도 안됩니다. 우리는 이런 6:25를 분명히 충분히 기억은 하되, 이젠 6:25가 우리들에게 더 이상 한발도 평화를 향해 걸어가서는 장애물로 작용하거나 발목을 잡아서 안된다는 마음으로 미래지향적 내일을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6:25를 평화의 날'로 선포하면서, 이젠 6:25가 '민족화해'와 '평화로 통일을 논하며' 다음세대 가치와 유산을 위해 서로 평화를 연습하고 평화를 실천하는 그런 날로써 분명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사적으로 한번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취지로 '6:25를 평화의 날'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미가 4:3). '하나님의 창조질서인 평화'입니다. 6월을 맞아 한반도에서 평화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이 하실 평화를 고백합니다. 다음달 시론에 이어집니다.

시론

(3면에서 계속)

'평화드림포럼'(동일부 소속)이라는 이름은 "평화를 드림(꿈꾸고), 우리의 기도와 수고를 하나님께 드림(실천하고), 이러한 평화를 한반도와 세계에 꼭 펼치자, 드리우자, 드림(하나님 나라)"라는 3가지 의미를 담고, 포럼을 통

하여 공감과 실천의 외연을 넓혀 나가자는 뜻으로 2021년 6월25일에 '6:25를 평화의 날'로 선포하며 첫걸음을 뒀었습니다. 미국 코네티컷주 뉴헤븐에 있는 예일대학교 중앙 센터빌딩 동그런 벽에는 사람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예일대학교 재학생이나 졸업생들 가운데 베트남전쟁, 이라크전쟁 등에서 사망한 전사자의 이름들입니다. 물론 거기

에는 코리아전쟁도 있습니다. 한 리버(한강), 낙동리버(낙동강) 전 두 등등의 이름 아래에 전사자들 명단이 빼곡히 적혀져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그 당시 한국이란 나라를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다만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그들은 머나먼 땅 한반도에 생명을 내 놓았습니다. 만약 이분들의 피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과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선거 참여는 세상속에서 “선한 청지기” 로 부름 받은 크리스천들의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대변해줄 정치리더를 뽑으세요!

기독교 캠퍼스 설립자, CCC 의 대표자이며 사영리 (4 Spiritual Law) 로 잘 알려진 빌 브라이트 (Rev. Bill Bright) 박사이자 목사님께서도 투표는 곧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며 의무라고 강조하시며 5가지의 책임을 꼭 해야 한다고 다음처럼 말씀하십니다.



크리스천들의 5가지 막중한 책들 - By Rev. Bill Bright

1. 기도하라 Pray!
2. 유권자 등록하라 Register to Vote!
3. 올바른 정보를 취하라 Be informed with right information!
4. 참여하라 Be Involved!
5. 투표하라 Vote!!

미국에서는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한 개인의 특권이 아니라 시민의 특혜입니다.

미국의 건립 아버지 (Founding Fathers) 들은 정부가 부패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작은 정부를 수호하라고 US Constitution (정부를 정의하는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미국의 근본적 역사를 알고 있는 시민일수록 꼭 투표를 하게 됩니다. 나의 한 표가 내가 살고 있는 도시와 국가 속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건강한 변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미국의 역사를 보면, 흑인들과 여성들은 “투표권”을 얻기 위해 엄청난 댓가를 치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아래는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진 선거자료들이 어떤 기준으로 올려진 것인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들은 Tvnex.org 에 가시면 후보자들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설문 조사한 이슈들: Tvnex.org 에서 후보자들 참조.

▷ 성경적 결혼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

▷ Pro-Life (친생명) - 태아도 인간생명이다

▷ Pro-Liberty of Faith (기독교 신앙의 자유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

▷ Pro-Safety of Nation (국가의 안전과 보호 수호)

▷ 미국 헌법 (US Constitution) 수호

▷ 공립학교에 들어온 3가지들 고치고 회복시키겠습니까? ① 정치의 옳음 (Political Correctness) ② 무분별한 Sex Ed. ③ 공산주의 사상을 세뇌시키는 교육들 반대.

왜 성경적 세계관을 수호하는 후보자들을 뽑는 것이 중요한가?

10년 전 버락 후세인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뽑히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가 흑인이라서 동양인들의 사정을 더 잘 알아서 도와줄 거라고 그와 그 행정부를 뽑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감사하도. 오늘날, 그를 뽑았던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잘못된 선택임을 깨닫고 올바른 선택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셔서 감사합니다.

버락 후세인 오바마는 그 외에도 수많은 반기독교 정책들을 자신의 행정부와 실행했습니다. 특별히 가장 반기독교적인 정책은 바로

Identity Politic(정체성 정치), Sexual Revolution(성 혁명)이지요. 특별히 주류 미디어 (CNN, NBC, ABC, 워싱턴 포스트, LA 타임스 등등) 들의 활약이 컸고요. 이런 성 혁명을 이룰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때 이루지 못한 단 한 가지 이슈, 현 바이든 대통령과 그 행정부가 바톤을 받아 전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성 정체성 혁명”의 마지막 한가지인 “아동 성애자 정상화”를 마무리시킬 수 있는 HR 5 (LGBTQ++ Equality Act) 라는 동성애인권 확장 평등법안을 내놓았습니다.

HR 5는 변태적인 성행위들을 비롯하여 아동성애자 (어린 아이들을 성적으로 관계하는 어른)들까지도 완벽하게 완전히 상상을 초월하는 아동들과의 성행위를 정상화하게 됩니다.

아동 성애자들을 지금 바이든 정부는 Minor Attracted Person(MAP)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동성애자들 정상화하는 정치적 운동이 성공하여 문화 속에 더 널리 퍼지고 또 다시 공립학교까지 들어가면 누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까요??

만겨지지 않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말도 안되” “그럴 리가” “미친 사람만 그럴거야” “법이 있는데” 등등으로 미루고 눈감고 계속 귀에 들기에 좋은 정치후보자들을 뽑았을 때, 결국 뒤에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망가지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며 교회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차세대 정신과 육체에까지 극히 위험한 생리적 몸을 바꾸는 “악”을 Celebrate 하는 차세대들의 Trend(유행), 계속 이렇게 나뉘어 될까요? 비윤리적인 성 정체성 교육과 문화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이들의 의도는 무엇 일까요?

선거자료와 위 내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들은 Tvnex.org 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단체는 미 전역의 성경적 가치관을 고수하는 기독교 단체들과 협력하여 아래와 같은 특별 이슈들을 “성경적 관점 -Biblical Principle”에서 지금 후보자로 나온 후보자들에게 설문 조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받은 대답들을 토대로 크리스천 선거 가이드 라인 / Recommendation을 만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선거자료는 따로 올라가 있으면, 그 외 주별로 “성경적 가치관”을 지지하는 후보자들의 조사 결과들은 Tvnex.org 에 가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Faith Statement이라고 부를 수 있는 Political Platform (경강)도 보기 쉽게 번역하여 올려놨습니다. 신앙고백이 중요하듯, 그들의 정치적 방향은 곧 미국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듣는 중에 과거 로마 네로 황제 때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고 바울과 베드로도 네로 황제 당시에 죽었다는 데 좀 더 구체적으로 1) 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순교를 당했으며 2)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셀비치에서 김 집사

A: 좋은 질문입니다. 그 당시의 배경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는 처음에는 자신들이 정복한 정복지에 대한 유희정책을 실시하여 대부분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 흡수하는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AD 64년 6월 18일에 로마에 대화재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의 황제는 7주야를 계속하였으며 로마 도시의 14구역 중 10개가 소실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정의를 부르짖었습니다. 곧 네로가 자기의 구상대로 다시 로마 도시를 새로 짓기 위해 로마를 파괴했다는 소문도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황제를 의심하는 시민들의 숫자가 점차로 증가되었습니다.

황제가 계속되는 동안 그가 마치 배우처럼 분장하고 궁정의 첩탐 위에서서 칠현금을 뜯으며 트로이의 파괴를 노래했다는 소문도 나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시인으로서 영감을 얻기 위하여 도시에 불을 질렀다는 식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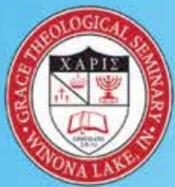
황제는 자신이 위기에 몰리자 기독교인들에게 혐의를 씌우기로 작정

그런데 화재를 모면한 두 구역에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특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황제는 자신이 위기에 몰리자 기독교인들에게 혐의를 씌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양과 지식과 학식을 겸비했던 로마인들은 기독교 신자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었기 때문에 다신론을 믿는 로마인들에게는 오만방자하게 보였습니다. 로마의 여러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다양한 신들이 로마제국의 안녕과 번영을 도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로마인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당시의 극장, 군대, 문학, 운동 경기들이 너무도 이교도들의 우상숭배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비협조적이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화재의 원인을 돌리고 기독교와 연루된 모든 사람들을 잡아 투옥시키고 그 대부분을 원형극장인 콜로세움에서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일부는 털옷을 씌워 개들이 물어 찢어 죽이게 하였고 또 다른 자들은 십자가 형으로 죽였습니다. 이렇듯 로마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보잘 것 없이 여겼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로마의 통치자인 황제를 신격화하는 최대의 박해를 보였습니다. 이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베드로와 바울도 기독교의 지도자로 지목되어 순교를 당한 것으로 봅니다.

네로는 68년 로마 상원의원들의 지원을 받은 반란에 의해서 퇴위되어 스스로 자살의 길을 택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다는 다 결말이 비참하게 끝납니다.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84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교(ATS정회원)
3.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는 100% 온라인 프로그램
4. 선교지 신학교나 현지 대학교에서 강의 가능한 학위 프로그램
5. FAFSA(연방정부 장학금) 지원 가능(영주권자 이상) 및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 목회전공
- + 선교전공

2022년 봄학기 온라인 수업일정

1월10일 - 3월6일
DI8310 History of Christian Mission (기독교 선교역사)
*** 3/7/2022-3/13/2022 (봄방학)

3월14일 - 5월8일
DI8180 Cross-cultural Leadership Development (타문화 지도력개발)

2022년 여름학기 수업일정

5월23일 - 7월17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 (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 D.Min in Ics.
PM 8610 Pastoral Counseling (목회상담)
for D.Min in pastoral

5월23일 - 7월17일
DI8150 Contextualization (상황화)

한국어로 취득할 수 있는 ATS승인 100% 온라인 박사학위과정입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seminary.grace.edu

총장: Dr. Drew Flamm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E-mail: gtskoreanstudies@grace.edu 카톡 ID: KoreanGTS

대표전화: 574-372-5100 (ex 6335), 574-334-7980(한국어)

목회와 선교



백운영 목사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시대를 앞서는 교회가 되자

오랜만에 나온 한국은 적응이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한국 사회의 변화가 워낙 빨라서 세대차를 다양한 곳에서 실감할 수 있고 인공지능이 대세가 되어버린 사회를 나이 드신 어

른들이 얼마나 이해할까 생각해 줍니다. 현찰거래가 재래 시장을 제외하고는 극히 많지 않습니다. 몇 번의 스크린 터치로 편리한 삶을 살아가는 젊은 이들이 이미 사회의 주역이 되

었습니다. 대화가 필요 없는 사회,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사회, 일보다는 레저와 식문화와 카페가 더 발달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발전은 희생한 세대의 땅이 있었기에 가능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점점 잊히는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가 더 편하고 온몸으로 배우는 희생을 자처했지만 컴퓨터로 일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비하면 쉽게 뒤쳐집니다. 그러면서 변화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지금 사회를 외부인의 눈으로 볼 때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최근에 워낙 신생아 출산율이 낮으니까 애를 낳는 가정에 정부가 자녀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많이 낳을수록 혜택이 커지고 더 많이 낳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많던 유치원들이 문을 닫는 대신 노아원

으로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애들 놀이터가 노인들 놀이터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가 눈에 뜨게 나타나고 빠른 고령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 사회적 현상이 교회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많은 것을 배우려는 마음으로 여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관심있게 본 것이 각 교회의 주일학교 프로그램입니다. 역시, 많은 한국의 교회들은 주일학교가 약하거나 성인 예배 중 주위를 둘러보면 젊은이들의 모습이 흔하지 않은 안타까운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갑자기 서구 교회를 따라가는 속도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도 고령화되어가며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대다수가 되어가는 슬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곳곳

을 조잘거리면서 뛰어다니는 활발한 몇몇 미주 한인교회의 모습이 겹쳐서 보입니다.

또한 이미 다문화권 사회가 되어버린 한국 사회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주말에 밖에 나가면 순수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이 워낙 많이 눈에 띄어서 여기가 한국이 아닌가 착각하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제가 사용하는 인도네시아어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말을 걸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 문화와 언어에 적응력이 빨라서 교회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마음을 열수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의 선교 개념은 여전히 바다 건너 선교지에 국한되고 후보에 적혀있는 선교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라고 후보에 선교지를 나열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보내주시는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은 선교 대상자

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주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부산의 한 교회는 주일 예배를 온 가족이 함께 드립니다. 예배 분위기가 자유로워서 어린이들도 집중하는 모습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의 찬양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배 후 구역으로 나눠 점심 교제를 하고 각 부서별로 성경공부와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오후에는 다문화권 예배가 각 언어로 진행되며 교회의 한 가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기에 여전히 희망이 보입니다. 미주의 교회들도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이 시대를 읽고 시대에 앞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gypack@hot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립라도 해라” 소리까지 들었지만 총기 규제 힘든 이유는 ‘NRA’

“뭐라도 좀 해라 (Do something!)”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29일(현지시간) 어린이 19명을 비롯해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텍사스 주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 희생자 추모 미사를 마치고 유벤티디의 한 성당을 나서던 중 시위대로부터 다음과 같은 소리를 들었다. 이번 참사로 총기 규제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오가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게 하겠다(We will)”고 답했다.



하지만 상황은 쉽지 않다. 미국은 총을 쓴 사람을 제외하고, 4명 이상이 총에 맞아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건을 ‘총기난사’(mass shooting)로 규정하는데 올해 총기난사 사건은 벌써 200건을 넘어섰다. 텍사스 총기 참사에 대한 추모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미 오일라호마주 등에서 여러 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일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떨어진다. 현실적으로 총기 규제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그중 가장 큰 산은 ‘NRA(전미총기협회)’가 꼽힌다. NRA는 미국 정치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이익단체인데 이들은 정치인(공화당)을 로비하는 데 많은 돈을 투입할 수 있는 막강한 자금력이 있다.

BBC에 따르면 NRA가 2020년 한 해 동안 지출한 금액은 2억5000만 달러(3172억원)에 이른다. NRA는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에도 3000만 달러(342억원)가량을 지원했다. NRA의 연간 예산은 대략 2억5000만 달러(2854억원) 규모로 교육 사업, 총기 시설, 회원 행사, 후원, 법률 활동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으로 NRA가 매년 정치 로비에 들이는 자금은 300만 달러(38억원) 수준이지만 로비 규모는 기록으로 남아있는 기부금 수치일 뿐 상당한 액수가 정치행동위원회(PAC)와 그 외 추적이 어려운 독자적인 기부금 등에 쓰이고 있다. NRA가 거물 정치인을 만들고, 무너뜨릴 수도 있는 정치세력이란 뜻이다.

실제로 NRA는 공개적으로 미 의회 의원의 총기 권리에 대한 우호도를 평가해 A~F로 등급을 매겨 지원 수준을 결정한다. 이 등급은 여론조사 수치 뿐 아니라 총기 규제를 찬성하는 정도에 따라 후보의 당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 한 전직 공화당 하원의원은 뉴욕타임스(NYT)에 “NRA에 가서 ‘제가 현직에 있는 동안 NRA에 반항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재 미 의회 구조상 법안을 바꾸기도 쉽지 않다. 상원 의사 규정상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면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선 최소 6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상원은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가지고 있다. 총기 규제 법안 처리에 민주당 외에 10석의 공화당 표가 필요하지만 보수정당인 공화당에서 총기 규제에 반대할 수 있는 의원이 나오기란

쉽지 않다.

“러시아정교회와 관계 끝”...우크라이나 정교회, ‘완전독립·자치’ 선언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러시아정교회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다. 그동안 키릴 총대주교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 정교회의 ‘전쟁 옹호’행태에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관계 단절을 선택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정교회와 외신을 따르면 모스크바 총대주교청 소속의 우크라이나 정교회 지도자들은 지난 5월 27일 회의를 열어 러시아정교회로부터의 ‘완전 독립’을 선언했다. 양대 우크라이나 정교회 가운데 하나인 모스크바 총대주교청 소속의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이날 발표 전까지 공식적으로 키릴 총대주교에 대한 충성을 유지해왔다.

정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키릴 총대주교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전쟁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긴 행위”라고 규탄했다. 키릴 총대주교는 동방정교회 TV채널 등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노골적으로 정당화하는 등 비난을 자초해왔다.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정교회와 우크라이나 정교회의 교류는 끊겼다”면서 “지난 3개월 동안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600만명의 난민이 발생했다”며 이들에 대한 영적 보살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정교회의 ‘완전한 독립과 자치’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협상을 계속하면서 유혈 사태를 막을 방법을 찾아달라”고 촉구했다.

로마 가톨릭, 개신교와 함께 기독교 3대 분파로 꼽히는 동방정교회는 전 세계에 약 1억1000만명의 신자를 두고 있다. 이 가운데 러시아정교회는 최대 규모다.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1990년 우크라이나 공화국이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모스크바 총대주교청 소속 우크라이나 정교회와 키이우 총대주교의 우크라이나 정교회, 우크라이나 독립정교회 등 3개로 나뉘어 활동해왔다. 그러다가 2018년 키이우 총대주교 우크라이나 정교회와 우크라이나 독립정교회가 통합했다.

이번에 독립을 선언한 정교회는 모스크바 총대주교와 산하 우크라이나 정교회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교회간 공식적인 연결고리가 끊겼을 셈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 세계 동방정교회 곳곳에서 러시아 총대주교와의 관계 단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유럽·북미 기독교만 주류라는 주장, 과연 그럴까?

기독교 운동의 핵심적 역사가 과연 지중해 유역에서 시작해 서유럽과 북미를 거치면서 완성됐을까.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적지 않은 기독교의 움직임들이 이들 지역만의 ‘메타 서사(서사가 이뤄지는 과정을 다룬 서사)’ 주변부에 머

물려 있는 것일까.

존 코클리 미국 뉴브런스윅신학대학원 석좌교수는 “세계 여러 지역이 걸어온 ‘기독교들의 역사들’ 서사도 기독교 운동의 거대한 메타 서사에 포함해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더우드 재매교회 협의회가 28일부터 양일간 서울 새문안교회(이상학 목사)에서 ‘낮선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메타 서사에서 한국적 서사로’를 주제로 연 제13회 언더우드 국제 심포지엄에서다. 협의회는 HG 언더우드 선교사가 개척한 22개 교회 연합체로 2008년부터 뉴브런스윅신학대학원과 공동으로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신학교를 졸업했다.

심포지엄에서 세 차례 발표한 코클리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교회사 분야 권위자다.

역사 신학자 데일 어빈 박사를 인용한 코클리 교수는 “기독교 역사는 단 하나의 서사가 아니라 다수의 전혀 다른 서사의 총합으로 기술되어야 한다”며 “실제로 어빈 박사는 ‘기독교들의 역사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여러 지역의 다양한 역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럽 기독교가 고대 기독교로부터 무엇을 전수 받았든 (유럽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문화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됐다”며 “유럽 기독교라는 나무의 결가지로 격하됐던 세계 다른 지역 기독교도 그 나라의 문화를 통하면서 새로운 전통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어빈 박사는 주류로 여겨지던 유럽과 북미 기독교를 여러 기독교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북대서양 기독교’로 한정했다. 메타 서사라는 독점적 지위가 없다는 걸 강조한 셈이다.

코클리 교수는 미국 예일대 교수였던 라민 사네 박사와 세계 기독교학의 개척자 앤드루 윌스 박사의 저작 내용도 언급했다.

그는 “이들 신학자는 초대 교회가 그리스·로마 문화 속으로 퍼지며 시작된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번역된 종교’로 아랍어로 된 경전만 가지고 선교하는 이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다양한 메타 서사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근대 선교에서는 복음을 각 민족의 언어로 번역하는 형태가 많았고 언더우드 선교사 또한 한국인 협력자들과 함께 그 일을 했다”면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번역 행위,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신성한 행위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강연에 앞서 언더우드 논문상 시상식도 진행했다. 대상은 양성진 장로회신학대 조직신학 박사가 쓴 ‘디트리히 본회퍼의 신학과 실천에 나타난 공적 신학 연구’에 돌아갔다.

중, 태평양 섬나라 10개국과 경제·안보 합의 ‘불발’

미국의 포위 전략에 맞서 태평양 섬나라들과 포괄적 안보·경제 협정을 맺으려던 중국의 시도가 일단 실패했다. 일부 국가가 이번 협정 체결로 최악의 경우 세계 대전이 벌어질 수 있다며 중국의 구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30일 피지에서 제2차 중국·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 회의를 주재했다. 중국과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사모아, 피지, 통가,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니우에, 쿡제도, 미크로네시아 등 태평양 10개 도서국 외교장관은 회의에서 안보와 경제 협력을 망라한 포괄적 개발 비전을 논의했지만 협정 체결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AP통신은 미크로네시아가 이견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데이비드 파누엘로 미크로네시아 대통령은 최근 다른 정상들에게 서신을 보내 “(중국과의 협정 체결은)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 안정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파누엘로 대통령은 특히 이번 협정을 “우리 생애 태평양에서 게임의 판도를 가장 크게 바꾸는 단 하나의 합의”라고 설명하며 “잘못하면 신냉전 시대, 최악의 경우 세계 대전을 불러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AFP통신도 일부 국가가 중국의 영향권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가는 상황을 우려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포괄적 개발 비전을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장관 회의에서 각측은 관련 문건에 대해 새로운 공동 인식에 도달했고 최종 합의 도달을 향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이어 “각측은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토론을 통해 더 많은 공동 인식에 도달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외교장관 회의 서면 축사를 통해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은 태평양 섬나라와 뜻을 같이하는 좋은 친구, 고난을 함께하는 형제,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반자”라고 말했다.

중국이 제안한 포괄적 개발 비전에는 중국이 태평양 섬나라들과 안보 협력 관계를 맺고 중국 공안이 현지 경찰을 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이버 보안 협력, 정치적 관계 확대 등도 포함됐다. 중국은 이를 위한 당국책으로 막대한 재정 지원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권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 부장은 지난 26일부터 열흘 일정으로 태평양 섬나라 8개국을 방문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일본 순방을 계기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키고 쿼드(Quad) 정상회의를 개최한 데 따른 맞대응으로 해석됐다. IPEF 출범과 쿼드 정상회의는 모두 중국 견제에 방점이 찍혀 있다.

중국 입장에서 제3도련선에 속한 남태평양 국가들과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국방전략상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당장 호주와 일본을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본과 대만, 필리핀을 연결하는 제1도련선, 괌과 사이판을 연결하는 제2도련선을 경계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했다.

특히 왕 부장이 방문한 솔로몬제도와 키리바시는 중국이 군사기지화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곳이다. 왕 부장은 미국의 태평양 군사 거점인 괌과 호주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솔로몬제도에 민간항공 수송 협력, 경찰력 구축 지원 등 전면적 지원 구상을 약속했다. 이어 키리바시에서 인프라 정비 협력에 합의했는데 핵심은 캔턴섬에 위치한 활주로 개보수 사업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아이신문이 보도했다. 중국이 개보수 지원 대가로 유사시 활주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캔턴섬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있는 하와이에서 3000km 정도 떨어져 있다.

중국은 이들 나라와의 협력에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다며 군사 거점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2017년 해적 퇴치를 명분으로 아프리카 지부티에 첫 해외 군사기지를 건설했다.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47. 박기홍(1872-1956)

박기홍은 1872년 9월 16일에 한국에서 태어났다. 33세였던 1905년 5월 8일에 노동 이민자로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한 그는 하와이섬 가우 파할라에 있는 사탕수수밭에서 힘겹게 노동하면서 파할라 한인감리교회에 출석했다.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 선교부는 1915년 2월에 하와이섬 가우 파할라에 사탕수수밭에서 노동하던 박기홍을 파할라 한인감리교회에 평신도 전도사로 파송했다. 박기홍의 전도로 1916년 2월까지 1년간 어린이 3명이 유아 세례를 받았고, 학습을 받은 어린이 8명이 세례를 받았으며, 그해 등록한 학습 교인은 5명이었다. 그해 2월에 학습 교인은 5명이었고, 세례 교인은 1명이었다. 두 곳에 주일학교를 설치하여 6명의 직원과 교사를 세워 20여 명을 가르쳤다. 그런데 지난 1년간 교인 2명이 별세하는 슬픔이 있었다.

차YC, 한명교, 박종수와 함께 박기홍은 1916년 2월에 집사 목사 훈련 과정에 등록했다. 박기홍은 그달에 작년에 섬기던 하와이섬의 파할라 한인감리교회 외에 나알레후 한인감리교회에도 파송되었다. 나알레후 한인감리교회는 오늘날에는 나알레후 연합감리교회로 변신하여 하와이벨트 길에 있다.

박기홍은 이듬해 1917년 2월에도 하와이섬 파할라 구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 1918년 2월까지 1년간 목회하면서 어린이 1명이 유아세례를 받았고, 학습 받은 어린이 5명이 세례를 받았으며, 2명이 학습을 받았다. 그달 2월에 학습 교인은 23명이었고, 세례교인은 2명이었다. 그는 3곳에 교회학교를 설치하여 교사와 직원으로 7명을 세워 등록한 20명의 학생을 가르쳤다. 지난 1년간 교인 훈련을 위하여 12달러를 지출했고, 자선을 위하여 24달러를 헌금했다. 하와이 연회에서 박종수와 리온 L. 러프부르와 함께 박기홍은 하와이 선교부 산하의 전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박기홍은 1918년 3월에 미국 북감리교 캘리포니아 연회 집사 목사 훈련 과정에 등록하였고, 작년에 이어 하와이 선교부에 소속되어 박종수와 리온 L.

러프부르와 함께 본 선교부의 전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달에 하와이섬의 하갈나우 한인감리교회에 파송을 받아 본 교회 이완구 권사와 김기순 권사와 협력하며 교회를 섬겼다.

박기홍은 안시흥과 함께 병이 나서 임원하였으므로 1919년 2월에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모인 하와이 연회에 참석하지 못했으나 그달에 박기홍은 하와이섬의 호놀가이지 구역 선

훈련 과정 3년 차에 들어섰다. 작년에 이어 그는 하와이섬의 호놀가이지 구역의 구역 선교사로 다시 파송받았다. 1921년 2월까지 1년간 성인 한 명이 세례를 받았고, 어린이 1명이 유아세례를 받았으며, 학습 받은 어린이 4명이 세례를 받았으며, 17명이 학습을 받았다. 그런데 지난 1년간 교인 2명이 사망하여 온 교회는 크게 슬퍼했다. 그해 2월에 주일학교에 등록된 학생은 43명이었고, 교사와 직원이 4명이었다. 1,900달러였던 작년과는 달리 예배당 건물과 대지의 값이 650달러 가치로 보고되어 오타가 아나가 싶다. 작년과 같이 여전히 사택은 없었다. 1년간 지출은 223달러였으며, 100주년 기금으로 69달러를 헌금했다.

1921년 2월에 박기홍은 집사 목사 훈련 과정 4년 차에 들어섰다. 그달에 하와이 연회는 그를 마우이섬에 있는 한인교회를 담당하는 순회 선교사이자 구역 목사로 파송하였다. 그래서 그는 스프래클스빌 한인감리교회를 담임하면서 지역 여러 한인촌을 순회 전도하며 곳곳에 있는 한인감리교회를 섬겼다. 여러 교회의 한인 교인들은 그의 목회를 충성스럽게 보조하였고, 모든 한

었고, 프린트상 착오로 세례 교인을 확인하기 어렵다. 주일학교에 36명이 등록한 가운데 평균 24명이 매주 출석하여 교사와 직원 등 4명이 가르쳤다. 엠피 연맹 고등부에는 14명이 등록하였고, 본 동맹 중등부에는 20명이 등록하였다. 1년간 지출금액은 275달러였으며, 100주년 기념을 위하여 100달러를 헌금하였다. 그리고 그는 하와이 선교부로부터 120달러를 보조받았다.

박기홍은 지난 캘리포니아 연회에서 집사 목사 훈련 과정을 마친 후 1923년 3월에 호놀룰루에서 윌리엄 O. 웨퍼드 감독으로부터 페르난도 캄포스, V. 파하르도 그리고 로만 우미피고와 함께 집사 목사로 안수를 받았다. 그달에 그는 작년에 이어 마우이섬 구역 목사로 파송받았다. 그는 1924년 2월까지 1년간 2명의 전도사와 함께 사역하면서 성인 4명에게 세례를 주었고, 어린이 4명에게 유아세례를 주었으며, 학습 받은 어린이 26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며, 성인 15명에게 학습을 주었다. 그리고 주일학교 두 곳을 설치하여 세 명의 교사가 등록한 21명 학생을 가르쳤고, 엠피 연맹 고등부에는 32명이 등록하여 활발하게 활동했다. 1년간 211달러를



교인 어린이 7명에게 세례를 주었고, 12명에게 학습을 주었으며, 그달에 학습교인수는 89명이었고, 세례교인수는 25명이었다. 한 해 동안 지출은 12달러였고, 세계 선교 헌금으로 8달러를 헌금했다. 그는 예전과 같이 하와이 선교부로부터 120달러의 보조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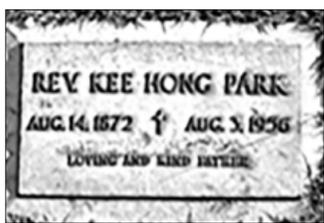
1925년 5월에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개최한 제20차 하와이 연회에서 박기홍은 한국인으로는 한명교와 김kc와 함께 임시 설교 목사로 채택되었다. 그는 그달에 마우이섬 샌트럴 구역의 구역 목사가 되어 파이아 한인감리교회를 담임하면서 구역을 순회하며 전도하였다. 그는 옛날 감리교회 목회자들이 했듯이 말을 타고 17개의 한인감리교회를 순회하면서 만날 수 있는 한 모든 한인들을 찾아가 전도했다. 그 구역에 어린이들이 많아서 그해 여름에 그는 사모와 함께 D.V.B.S. 를 개최하였는데 많은 어린이가 크게 즐거워했다.

안타깝게도 박기홍은 그해 성탄절에 흉막염으로 샌트럴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했다가 폐결핵으로 진단을 받은 후 마우이섬에 있는 콜라 요양소에 입소하였다. 그가 별세했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그는 나름대로 건강을 유지했다. 그런데 그가 전도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고 순회 전도하려고 하여 담당 의사는 적어도 6개월 동안 목회할 수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마우이섬을 담당 하와이 선교부의 선교사인 앤셀 W. 길리스 목사는 그와 그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하와이 선교부 소속 목사와 교회에 당부했다.

박기홍이 하와이 선교부에 보낸 마지막 보고서에서 그가 6주 또는 8주 동안 목회할 수 있다고 적었지만, 담당 의사의 진단에 따라 폐결핵으로 콜라 요양소에 입원하였으므로 박기홍은 1926년 2월에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개최한 하와이 연회에 출석하지 못했고, 건강 문제로 파송도 받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하와이 선교부 총무는 그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냈고, 일본인 도구지 고무라 목사는 하와이 선교부 소속 목사와 교회로부터 기금을 모아 박기홍에게 75달러를 보냈다. 하와이 연회는 박기홍을 대신하여 하와이에서 20여 년간 한인교회를 섬긴 임준호 목사 부부와 8명의 자녀를 마우이섬 구역 목사로 파송하였다.

(16면으로 계속)

하와이 사탕수수밭 이민 노동자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어 사명을 감당하다.



교사로 파송되었다. 이곳에는 박성배 전도사와 이완구 전도사가 있어 전도에 도움이 되었으나 그만큼 활동이 많았다. 1920년 2월까지 1년간 그는 두 명의 전도사와 함께 전도하는 가운데 성인 10명이 세례를 받았고, 어린이 5명이 유아세례를 받았으며, 2명이 학습을 받았다. 두 곳에 주일학교를 설치하여 등록한 42명에게 7명의 교사와 직원이 가르쳤다. 이전의 교회와는 달리 엠피 연맹을 조직하였는데 본 연맹 고등부에는 10명이 등록하였고, 본 연맹 중등부에는 9명이 등록하여 활발하게 활동했다. 예배당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과 대지의 시가는 1,900달러였다. 한 해 지출은 23달러였고, 100주년 기념 기금으로 64달러를 헌금했다.

인 교인이 그를 존경했다. 전도사 한 명과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1922년 2월까지 1년 동안 성인 한 명이 세례를 받았고, 어린이 4명이 유아세례를 받았으며, 학습 교인인 어린이 80명이 세례를 받았고, 22명이 학습을 받았다. 그해 2월에 학습 교인은 28명이었고, 세례 교인은 30여 명이었고, 40명이 교회학교에 등록된 가운데 평균 28명이 출석하여 교사와 직원 등 4명이 가르쳤고, 엠피 연맹 고등부에는 20명이 등록하였고, 본 연맹 중등부에는 17명이 등록하여 활동했다. 한 해 동안 지출은 18달러였고, 100주년 기념 기금으로 50달러를 헌금했다.

작년에 이어 1922년 2월에도 박기홍은 마우이섬 구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이곳에 산재한 일곱 한인감리교회를 섬겼다. 그는 매우 성과 있는 목회를 하였고, 모든 교인은 그를 존경하며 그의 목회에 기뻐했고, 소망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였다. 1923년 2월까지 1년간 전도사 한 명과 함께 협력하면서 성인 2명이 세례를 받았고, 어린이 9명이 유아세례를 받았으며, 학습을 받은 어린이 11명이 세례를 받았고, 5명이 학습을 받았다. 그달에 학습 교인은 96명이

지출했고, 100주년 기념을 위하여 100달러를 헌금했다. 그는 지난 1년간 하와이 선교부로부터 작년과 같은 금액인 120달러의 보조를 받았다.

작년에 이어 박기홍은 1924년 2월에도 마우이섬 구역 선교사로 파송받았다. 그는 스프래클스빌 한인감리교회를 담임하면서 지방을 순회하며 전도하고 돌보았다. 늘 하듯이 만국주일공과를 통하여 이듬해 2월에는 시편 121:1-8과 마가복음 14:32-42를 읽고 주일공과 제1부 제7과인 '예수께서 겹세마네에 계심'을 가르쳤고, 시편 72:1-8과 로마서 13:1-14를 읽고 제1부 제8과인 '좋은 국민'을 가르쳤으며, 다음 달에는 이사야 93:1-6과 마태복음 27:11-26을 읽고 제1부 제9과인 '빌라도 앞에 있는 예수'를 가르쳤고, 시편 23:1-19와 누가복음 23:33-46을 읽고 제1부 제10과인 '십자가 위의 구세주'를 가르쳤으며, 시편 16:5-12과 요한복음 20:1-16을 읽고 제1부 제11과인 '부활하신 예수'를 가르쳤다.

그해 5월까지 1년간 두 명의 전도사와 함께 마우이섬 구역을 섬기면서 1명의 성인에게 세례를 주었고, 4명의 어린이에게 유아세례를 주었으며, 학습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 579-7576, Fax: (702) 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다민족 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성경공부: 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헌정기도: 매주(목) 오후 4:00-7:00 Tel: (773) 802-1112, estross@yahoo.com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재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배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 844-6446, Fax: (215) 844-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67	벤넬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 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kton City, MD 21042	보스ตัน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성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유치, 유년, 종교대학: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 435-4579, www.bostonlca.org 2 Main St, Hopedale, MA 01748
새생명한인교회 담임목사: 정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전 11:00 E M 예 배: 오후 7:00(목) 새 생 배 배: 오전 6:00(화/목/토) 구 역 예 배: 각 구역별로 한 국 학 교: 오전 10:20(주일) Tel: (850) 423-9700, Cell: (213) 703-9961 5502 Old Behnel Rd, Crestview, FL 32536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702) 749-9929, www.om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라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 820-9049, www.jepp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얼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 어 예 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600 Branwood St, Anch, AK 99518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은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 542-0288, Fax: (215) 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 주 성 경 기 도 회: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Tel: (254) 325-1842(화), (254) 501-4933(목) 1000 E. Veletro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 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 생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 356-6675, www.lacomc.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말씀과 땅 (10) - 기근



박성현 박사 (고든콘웰신학대학원 구약학교수)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창 12:10).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갈대아 우르, 하란을 뒤로하고 가나안에 당도한 아브라함과 그의 식솔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게 된다 - 기근! 그동안 메소포타미아(Mesopotamia)에서 갈을 끼고 살아왔던 아브라함에게 기근이란 경험해 본 적도, 또 상상해 본 바도 없는 난관이었을 것이다. 근동지역에서 기근이란 농사를 지을 수자원이 부족해 빚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하란의 경우 유브라데(Euphrates) 강의 상류인 발릭(Balik) 강을 끼고 있고, 특히 갈대아 우르는 유브라데강과 히타테겔(Tigris) 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어 필요한 물을 어느 때나 끌어 쓸 수 있는 땅이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Nile)을 찾아 애굽(Egypt)으로 내려가게 된다(창 12:10). 칠십오 년을 유브라데와 히타테겔 강을 끼고 살아온 그가 하루아침에 삶의 패턴을 바꾸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비를 받아 사는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있으니 그가 무얼 어찌할 수 있었겠는가? 비록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히 11:8) 길에 오르는 했지만, 막대한 현실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과연 가나안에 기근의 우려가 있는 땅인 줄 미리 알았다면 따라나섰을까? 그가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히 11:8) 나아갔다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런 형편을 모르는 가운데 갔던 것임을 짚어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기근이 당시 그 땅에 거주하던 가나안인들에게는 강수량의 부족이라는 자연현상의 문제일 뿐이었겠지만 이

는 아브라함 첫 제단을 쌓았던 세겜 땅을 두고 하는 말이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 중 가장 북쪽, 즉 강우량이 가장 높은 곳,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나마 살 만한 곳, 그 땅은 가나안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보고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과 같은 이방인에게는 발



했던지, 아브라함은 벨엘 동쪽의 장막 생활도 얼마 지속하지 못한 채 “점점 남방으로 옮겨”(창 12:9) 가고 말았다. 더 이상 텃세를 부릴 가나안 사람이 있지 않은 곳, 적박해 아무도 살고자 하지 않는 땅, 메달라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땅에 이르러서야 그는 장막 치기를 맘 놓고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가뭄으로 시달리는 땅에 이민자의 삶을 살기 시작한 아브라함. 그 땅에서 그에게 물을 나눠 줄 사람은 없었다.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창 12:1) - 이 말씀을 따라 그가 와서 본 것은 바로 이렇게 자연과 인심에 기근이 든 땅이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상황인가. 어떻게 하느냐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창 12:2) 게 하겠다는 약속을 유브라데도, 히타테겔도 없는 기근의 땅을 두고 하실 수 있다는 말인가. 큰 민족은커녕 한 가족의 생명

두 사실을 기억하라

“아브라함은 여호와와 말씀을 따라갔고, 가나안에 도착하자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는 수자원 부족으로 인한 기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고, 인구 순위가 곧 국력의 순위였던 당시 큰 나라는 자연히 많은 인구를 지탱할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세워졌다.

이렇게 강이 수자원이었던 메소포타미아와는 달리, 가나안은 비가 그 수자원이었던 땅이었다. 이 점은 지금도 그러하다. 지난 2018년,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한 갈릴리 호수의 수위가 그동안 계속 감소한 강수량으로 인해 지난 100년간 최하를 기록하자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해 물로 갈릴리 호수를 채우기 위해 해수 담수화 시설을 설치하도록 2억 7천만 달러(\$270,000,000) 규모의 예산을 결정한 바 있다.

가나안의 기근 - 일차적으로 그것은 계속되는 강수량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자연재해였고, 마치 21세기의 이스라엘이 해수를 담수로 바꾸듯 대안이 필요했던 아브라함은 급기야 가나안에서 가까운 큰 강 나일

민자 아브라함에게는 그 고통을 가중시키는 사회적 문제가 더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 면은 창세기 12:6-9에서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 안에서의 이동패턴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가나안에 당도해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나무”(창 12:6)에 이르러 첫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은 거기 머무르지 않고 “벨엘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창 12:8) 친 후 다시 제단을 쌓는다. 그런데 다시 여기 머무르지 않고 또 이동해 “점점 남방으로 옮겨”(창 12:9) 가고 만다. 이 이동패턴은 가나안의 북쪽에서 점점 남쪽으로 옮겨가는 것인데, 그 땅의 지역적 특징상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서 더 낮은 지역으로 이동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강수량의 부족으로 기근이 든 땅에서 왜 아브라함은 점점 더 환경적으로 열악한 곳으로 옮겨갔을까? 본문의 세 문구가 힌트를 준다: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창 12:6).

불일 곳이 없었다는 뜻으로 읽히는 구절이다.

“벨엘 동쪽”(창 12:8). 그런 세겜에 발 붙이지 못하고 그가 옮겨 간 곳은 벨엘 지역이었다. 세겜보다 남쪽에 위치했기에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동쪽으로는 유다광야가 이미 시작되는 지역이다. 바로 그 “동쪽”, 광야에 가까운 곳에 그가 자리를 잡았다. 다시 말해 더 열악한 곳으로 옮겨 갔고, 거기서도 가장 못한 자리로 갔다고 읽혀진다.

“장막을 치니”(창 12:8). 그가 그 지역 가나안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았다면 그 성에 들어가 그들이 건물을 대비해 마련한 숙소 시설에서 물을 공급받으며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장막”을 쳐야 했다. 다시 말해 성 사람들은 그를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는 문맥이 읽혀지는 문구다. 철저히 이방인으로, 객으로 지냈음을 암시한다.

가나안 사람들의 텃세가 심

조차 부지할 수 없는데 말이다.

새 땅에서의 새 삶이 옛 땅에서의 옛 삶만 못하다 판단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나일 강이 흐르는 애굽을 향해 그의 눈을 돌려 다시 한번 큰 강에 자신과 식솔들의 생계를 의탁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는 사래를 빼앗기고 바로로부터 질책을 당하는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 두 가지를 기록하게 하셨다: 그가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와 말씀을 따라갔고”(창 12:4), 가나안에 이르러서 그 땅 사람들 사이에 객으로 사는 중에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사실이다(창 12:7, 8). 이 두 사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장차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 되게끔 그 선대하심을 멈추지 않으실 것이다.

spark4@gordonconwell.edu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파서신대학 교수)

잠깐 멈춤

이 년 넘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하며 조심조심 잘 지냈는데 오미크론 끝자락에 감염이 되었다. 백신이 처음 나올 무렵, 접종 직전에 코로나에 걸려 산소마스크까지 써야 했던 딸을 돌볼 때도 잘 버티었는데 말이다. 봄학기 마지막 강의 날 아침부터 목소리가 안 오고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온몸이 축 늘어지며 힘들었다. “학생이라면 오늘 같은 날은 아프다고 말하고 학교에 안 가겠는데...” 중얼거리며 학교에 갔다. 겨우 수업을 마치고 집에 와서는 바로 누워 버렸다. 오미크론 증상은 독감 정도라고 들었지만 밤새 심한 몸살기로 뼈가 추시고 아파서 잠을 설쳤다. 아침에 래피드 테스트를 해보니 양성이었다. 바로 PCR 검사 예약을 하고 주치의에게 진화를 해서 코비드 치료 약을 처방받을 수 있었다. 다음 날인 졸업식에도 참석을 못하고 꼬박 열흘을 방에서 자가격리를 했다. 마침 주말이어서 딸이 음식을 챙겨서 방문 앞에 놓고 가면 식사 후에 딸이 자기 방으로 들어간 후에 마스크를 쓰고 내려 가 일회용 장갑을 끼고 내가 먹은 그릇을 따로 닦아서 끓는 물에 소독을 했다. 딸이 출근을 한 후에도 혹시 바이러스를 옮길까 싶어서 음식을 챙기러 잠깐 부엌에 나가는 것 외에는 방 안에서만 머물렀다. 약 덕분에 이틀 정도 지나니 그 책상에 앉아 일할 수 있는 기운이 생겼다. 밀려던 사람 정리도 하고 세미나 준비도 하고 정말 오랜만에 모든 외부 활동을 멈추고 여유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은근히 좋았다.

나만의 공간에 갇혀서 열흘을 지내면서 “멈춤”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았다. 우리에게 별생각 없이 늘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일상의 삶에서 의도적으로 잠깐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다. 멈추는 시간은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것이다. 제한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태초부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함께”인 삼위일체였다.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가는 과정에도 내가 아닌 타인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나 좌절감 없이 내가 죄인임을 느끼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사랑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미움과 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다듬어지고 깎여진다. 혼자만의 시간이 없다면 함께하는 시간의 깊이가 얕아질 것이다.

유난히 마음 쓸 일이 많았던 봄학기를 마치고 딸과 함께 휴가로 그리스에 와 있다. 마침 그리스에서 해외근무 중인 조카가 있어서 편안하게 그리스행을 결정하였다. 아테네에서 세 시간 정도 떨어진 메테오라 지역 산에 올라가니 산 꼭대기마다 자리 잡은 여섯 수도원을 볼 수 있었다. 어떻게 그렇게 높은 곳에 건물을 지을 수 있었는지 궁금할 정도로 양벽 꼭대기에 지어진 수도원들이었다. 지금은 관광객들을 위해서 열려 있기 때문에 수도원이 생활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가능하면 한 달 정도만 조용히 머물고 싶은 장소였다. 11세기에 지은 대표적인 수도원 입구에 걸린 작은 성구가 그들이 왜 그렇게 돌 산 꼭대기에 수도원을 세웠는지를 설명하고 있었다. “위에 것을 생각하고 땅에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나 함께 거하기 위함이 아닌 세상과 단절된 고통은 고립일 뿐이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맞본다. 그리고 그 평안이 주는 힘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해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코비드 때문에 혼자 방에서만 머물며 보낸 열흘은 마치 그동안 사람들 틈에서 방전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것 같은 시간이었다. 사람들과 단절된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내면의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었다. 실 틈 없이 굴러가는 바퀴 같은 일상을 멈추기 어려울 때 오미크론을 통해 잠깐 멈추게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 시간이 은혜였음을 감사하며 이제 다시 함께함의 삶으로 돌아가려 한다.

lpyun@apu.edu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h3>감사한교회</h3> <p>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화-목 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p> <p>Tel: (714)521-0891, www.thank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h3>나성순복음교회</h3> <p>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화-목 예배: 오후 7:30(영성) 주일 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elpusa@ehoo.com / www.lsc.org Tel: (323)8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h3>남가주든든교회</h3> <p>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40(월-금)</p> <p>Tel: (714)481-2778 / facebook.com/frcsc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h3>남가주사랑의교회</h3> <p>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7:20 주일 2부 예배: 오전 9:2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20 청년 예배: 오후 1:20 영어권 (중소·KDC, 캠퍼스팀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h3>대흥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 화-토, 6:00(월-토) 금요일예배: 저녁 7:30</p> <p>Tel: (310)719-2244, www.dkc.org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h3>디아스포라선교회</h3>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p> <p>Tel: (213)559-7728 (전화 팩스 전용), Tel: (213)210-688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h3>미주평안교회</h3> <p>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p> <p>Tel: (213)380-6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h3>미주평안교회</h3> <p>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p> <p>Tel: (213)381-2202, www.mpci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h3>복음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p> <p>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h3>베델한인교회</h3> <p>담임목사: 김한오 주일 1부: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일회예배: 오후 1:30(수-토),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Tel: (949)864-4010 / behel@bkc.org / www.bkc.org 16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h3>세계소망교회</h3> <p>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Tel: (213)-235-7891 824 W. Venable Blvd., L.A., CA 90015</p>	<h3>실비지 사랑교회</h3> <p>담임목사: 이정현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6:30</p> <p>Tel: (310)749-4756 실비지 리저널 클럽house 3 Lobby(주말) Church 3 room 1(수)</p>
<h3>열매교회</h3> <p>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p> <p>Tel: (323)737-3009, Ce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h3>엘피스사역원</h3> <p>원장: 박은송 목사 (LA북쪽연합감리교회합동목사) 상담사역: (월-금) 오전 10:00-4:30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교회 평신도 여성 리더 사역: 1. 문화상담 2. 가정사역세미나 3. 말씀사역 4. 네트워킹사역</p> <p>www.elpisfamily.org Tel: (213)700-8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h3>은혜한인교회</h3> <p>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온</p> <p>Tel: (714)446-6200, www.gracem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h3>주님세운교회</h3> <p>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행회: 오후 7:20(금)</p> <p>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p>	<h3>주님의영광교회</h3> <p>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14)646-9259 www.soci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h3>좋은마음교회</h3> <p>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14)530-4040(CH), www.cornestonny.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h3>코너스톤 교회</h3> <p>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310)530-4040(CH), www.cornestonny.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h3>토렌스조은교회</h3> <p>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본당) E.M. 예 배: 오전 9:45 (101부) 주일학교: 오전 11:30 (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 (본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 (본당) 새벽예배: 오후 8:00 (본당) 새벽기도: 오전 5:30 (본당)</p> <p>Tel: 310-370-5500, www.torance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h3>하늘소망교회</h3> <p>담임목사: 김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Tel: (213)500-2948, dcbk.kim@cbic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p>	<h3>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3> <p>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86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h3>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3> <p>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86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h3>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3> <p>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86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목회서신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교도소 선교를 하는 어떤 선교사가 교도소에 수감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정에서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한 결혼 가정의 아이들이 범피 하여 교도소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기들이 볼 때, 한 번도 책을 조용히 읽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라고 합니다. House는 있으나, Home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들의 따뜻한 대화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학교에 갔다 오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인터넷만 보고 밥 먹는 시간에도 열심히 셀폰으로 채팅 하기에 바쁘니.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부모님과 눈 맞추고 대화 하기가 점점 어려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해도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지 깊은 대화를 나누지 오래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상에 앉아 찬송하며 부모님의 기도를 받고 자라는 자녀들이 많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창5:22에 에녹은 사악한 시대에 “므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

를 낳았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열매는 사악한 시대에 가정과 자녀들을 책임지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에녹의 삶에는 어떤 병든 자를 고치거나 엘리야처럼 기적을 행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 자녀들에게 경건생활의 본이 되는 일은 기적중의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창 5:21-22에 “에녹이 65세에 므두셀라를 낳았고, 므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녹은 65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65세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더 중히 여기고,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 기쁨을 좇아 살았고, 하나님과 기도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5세에 무슨 계기가 일어나 Turning Point가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므두셀라의 탄

생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에녹아! 세상이 너무 악해졌지? 내가 너에게 아들을 하나 줄텐데 이름을 므두셀라라고 지어라. 그 뜻은 ‘이 므두셀라가 죽는 날 심판이 임한다’는 뜻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65세에 아들을 낳자 이름을 ‘므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므두셀라는 ‘창던지는 자란 뜻입니다. 므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보초병의 이름입니다. 이 마을에서 다른 마을을 공격하려면 므두셀라를 죽여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므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에녹은 65세에 므두셀라를 낳고 므두셀라가 죽는날이 심판이 임하는 날이니, 언제 므두셀라가 죽을 지 알지 못하므로 날마다 깨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 7:11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 심판이 임했는데, 그때가 바로 므두셀라 969세 때 임니다. 므두셀라가 죽는 해에 하나님의 말씀에 홍수 심판이 정확히 임한 것입니다. 한해의 오차도 없이 예언대로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 24장에 이 시대의

므두셀라 곧, 재림 전 의7가지 징조를 2000년 전에 예언하셨고 지금 그 징조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눅21:34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날이 뿔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었습니까. 므두셀라라는 ‘창던지는 자란 뜻입니다. 므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보초병의 이름입니다. 이 마을에서 다른 마을을 공격하려면 므두셀라를 죽여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므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에녹은 65세에 므두셀라를 낳고 므두셀라가 죽는날이 심판이 임하는 날이니, 언제 므두셀라가 죽을 지 알지 못하므로 날마다 깨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 7:11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 심판이 임했는데, 그때가 바로 므두셀라 969세 때 임니다. 므두셀라가 죽는 해에 하나님의 말씀에 홍수 심판이 정확히 임한 것입니다. 한해의 오차도 없이 예언대로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 24장에 이 시대의

을 읽고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며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는데, 2달이 지나서 친구들이 다른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라고 해서 가봤더니 암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병원에서 오진을 한 것입니다. 누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오진으로 그동안 교회와 선교사업에 돈 많이 써서 억울하지 않아요?” 그러자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게는 지난 2달처럼 보람 있고 행복한 때는 없었습니다. 지난 2달이 신앙생활 제대로 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선다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정신이 번쩍 들고 날마다 내 영혼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건강한 종말 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이 어둠의 시대에 에녹과 같이 끝까지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며, 건강한 종말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ongkpak@hotmail.com



올리원처 창립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장경호담임목사

Only One Church 창립예배 드려

“예수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전하는 교회 될 것”

올리원처(담임 장경호목사)가 새롭게 탄생됐다. 5월29일(주일) 오후 4시 창립 감사예배를 드린 Only One Church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 성장하는 신앙’을 표어로 삼고 첫 출발을

선포했다. 장경호 담임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강애라목사(ANC 온누리교회/새가족)기도와 본 교회 성도들의 특송과 설교, 황기동목사 부부의 축가와 오은규

목사(밀라선교회 대표)격려사, 김인서목사(아르헨티나 선교사)축사, 이승혁목사(ANC 온누리교회/선교부)축사로 은혜가 운데 진행됐다. 이날 말씀을 전한 담임 장경호목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시73:21-28)란 제목으로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 하나님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 원한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할 사명이 모든 교회에게 있다. 이 사명을 선교라고도 표현하기도 한다.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 사명을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감당해 드리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한다”고 말씀을 전했다. 올리원처는 지난해 12월부터 예배를 드려오다 5개월 만에 1525 Glenoaks Bl. San Fernando CA 91340에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창립예배를 드렸다. 본 교회 주일예배는 오전 10시이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에 성경공부와 금요기도회를 갖고 있다. 자세한 것은 onlyonech2022@gmail.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경호목사는 아르헨티나 갈보리교회, 한국인교회, 멘도사교회에서 20여년간 사역해 오다 미국으로 이주, ANC 온누리교회 선교목사로 사역했으며 2017년부터 월드미션대학교 라틴 프로그램 교수로 라티노 신학생들을 위한 신학과 코디네이터로 섬겨오고 있다. <이성자 기자>

미주크리스천문인협회 창립 제39주년 출판 기념회 열려

미주크리스천문인협회(이사장: 정지윤, 회장: 송종록)에서는 창립 제39주년을 맞이하여 출판 기념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5월28일(토) 오전10시 JJ 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송종록 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1부는 참석자들이 애국가를 부른 후 김대준 목사(LA 비전교회)가 대표로 기도하고, 정희숙 권사가 특송을 부르고, 지용덕 목사(양곡교회)가 ‘성공의 지도를 그려라(수 18: 8)’는 제목으로

로 설교를 했다. 지용덕 목사는 “문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역사를 자랑스럽게 표현하고 지내온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라며 “여러 문인들이 쓴 글과 그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을 들어내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송종록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김정복 목사의 축사로 마쳤다. 손문식 부회장이 사회로 시작된 2부는 정지윤 이사장이 인사말을 했다. 정지윤 이사장은 “크리스찬들은 문학에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한다. 나아가 문학하는 여러분들은 이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복림, 고광이, 연기호, 노정해 목사, 최학량 목사가 축사를 하고 살롬합창단이 축가를 부르고 김태영, 김현실, 김종조, 안청아 회원이 시 낭송을 하고 김숙영 전도사가 특송을 했으며 김창호 이사가 마침기도를 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크리스천문협제39집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Worldwide church directory listing various churches such as 동부(NY,NJ)교회, 뉴욕새사람교회, 뉴욕양리장로교회, 뉴욕센트럴교회, 뉴욕주안교회, 뉴저지성도교회,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빛과소금교회, 사랑의동산교회, 새벽별주님교회, 어린강역교회, 온누리장로교회, 퀸즈장로교회, 아르헨티나제일교회, 칠레 한인연합교회, 토론토 가든교회, 하와이 행복한교회,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and others, each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 times.

동부교계 게시판

뉴욕장로교회 임직 및 취임 감사예배
 뉴욕장로교회 안수집사, 권사 임직 및 취임 감사예배가 6월 5일(주일) 오후 5시에 본당에서 거행된다.
 ▲ 문의 : (718) 706-0100

뉴저지 호산나 전도대회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가 2022년 호산나 전도대회 및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그리스도인답게'란 주제로 박신일목사(밴쿠버 그레이스 한인교회)가 강사로 참여한 가운데 뉴저지연합교회(담임목사 고훈승)에서 6월10일(금)부터 12일(주일)까지 열린다. 금, 토요일은 7:30pm, 주일은 5:00pm에 개최된다. 목회자 세미나는 같은 장소에서 6월13일(월) 오전 10시에 열린다.
 ▲ 문의 : 201-394-7821

복음뉴스 창간 5주년 및 종이 신문 발간 1주년 감사예배
 그동안 교계의 많은 소식을 발로 뛰며 전했던 복음뉴스(발행인: 김동욱 목사)가 창간 5주년 및 종이 신문 발간 1주년 축하 및 감사예배를 6월 19일 주일 5시 30분에 뉴욕만나교회(정관호 목사)에서 가질 예정이다.
 일시 : 2022년 6월 19일(주일) 오후 5시 30분
 ▲ 문의: (516)780-4525 (준비위원장 김요셉 목사)

주사랑장로교회 (KAPC) 학생부 교역자 청빙
 주사랑장로교회 (KAPC 소속)에서 학생부 교역자 (파트타임)을 청빙한다. 자격조건은 개혁주의 신학교에서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고 영어에 능통한 자로 제출서류는 이력서, 개인간증과 목회철학, 추천서 2통을 이메일: youngkim0117@gmail.com 로 보내면 된다.
 ▲ 문의: youngkim0117@gmail.com

뉴욕장신대 학위수여식 및 졸업예배
 뉴욕장로회신학대학원은 6월 5일(주일) 5:00PM에 하나님의 사랑의 교회(정석진 목사 시무)에서 제37회 학위수여식 및 졸업예배를 드린다.
 ▲ 문의: (201) 374-2432

화요 수보자 기도학교

국제도시선교회(ICM) (김호성 선교사)는 세상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무너짐을 뉴욕과 미국에서부터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자는 취지로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수보자 기도회]를 뉴욕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5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10주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수보자 기도학교]를 통하여 다양한 기도의 방법과 다양한 기도훈련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장소: 뉴욕 하크네시아 교회
 주최: 국제도시선교회(ICM) / 750만 111부흥기도운동 / 미국 재부흥운동 / 뉴욕, 미동부 성서화운동
 ▲ 문의: (718)683-6332



(정리: 김재상 기자)

동부 한인교회 VBS 일정

동부 한인교회들이 여름성경학교(VBS)를 다양한 주제로 6월 초부터 열린다. 다음은 동부 한인교회들의 VBS 일정과 주제이다.
 (홍현숙 기자)

날짜	교회	주제	문의
6/4-6/5	온누리교회	"Adventure Island"	212-427-2055
6/18-7/2	뉴저지초대교회	"Spark Studios"	201-767-0400
6/19-6/22	영생장로교회	"Monumental"	215-542-0288
6/24-6/26	한인동산장로교회	"Monumental"	914-961-0540
6/27-6/29	베이스이드장로교회	"Food Truck Party"	718-229-0858
6/27-7/1	찬양교회	"Monumental"	732-805-4050
6/28-6/30	뉴욕센트럴교회	"Monumental"	516-387-9940
6/28-6/30	아름다운교회	"Monumental"	516-349-5559
6/30-7/2	퀸즈장로교회	"Monumental"	718-886-4040
6/30-7/2	필그림선교회	"Make Waves"	201-461-1225
7/1-7/3	뉴욕총선교회	"Jerusalem"	929-362-2139



어린이들의 아트 작품

CCV 말씀축제 "아트와 함께하는 말씀과 찬양"

제13회 CCV 말씀축제가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모임을 피하고 5월 21일(토)에 유튜브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특별히 이번 축제는 아트 축제(Art Festival)로 진행되어 말씀과 함께 각 교회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그리거나 만든 작품을 보여주며 진행됐다.
 CCV 사역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온라인을 통해 땅끝까지 전하는 비전을 가지고 매년 2회 말씀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사장 조원태 목사는 말씀축제를 시작하며 축사를 통해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위축된 각 교회의 어린이부에 하나님 말씀으로 부흥의 비전을 포

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CCV는 간곡히 기도드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13번째 말씀축제는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끝자락에서 열게 해 주셨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특히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통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그들에게 열매 맺는 꿈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
 또 제14회 CCV 말씀축제는 현장에서 열린다고 선포했다. 김성광 CCV 대표가 제작한 이번 영상에는 회원교회에서 보내온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아트 작품과 함께 말씀묵상, 찬양 등으로 진행 됐다.
 (정리: 김재상 기자)

개신교수도원수도회 창립 11주년 기념예배

개신교수도원수도회는 5월 22일 주일 오후 5시 수도원 에덴정원에서 창립 11주년 기념예배가 열렸다.
 예배는 사회 김에스터 목사(원장), 기도 김도완 목사(뉴저지장로교회), 원장인사 낭독 대

독 조유환 목사(수퍼비전 클래스 8대 회장), 찬양 전주는 집사(뉴저지장로교회 지휘자), 설교 전진은 목사(뉴욕한인중앙교회), 성찬식 사공태문 목사(원로노회성직자회 6대 회장), 특송 슈퍼비전과 렉시오디비나 클래스, 수도원상 수여 김경호 이사장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고한승 목사(뉴저지교회협 회장, 렉시오디비나 4대 회장)가 11주년에 대한 축사, 김창길 목사(초대원장)가 3명의 수도원상을 받은 수상자에 대한 축사가 이어졌다. 이어 축도 김진양 목사(새언약교회 협동 목사), 식사기도 전인숙 목사(렉시오디비나 5대 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2022년도 수도원 상으로 경건한 목회자상을 김금옥 목사가 박범식 이사과 심연옥 이사에게 각각 수도원상을 수여했다.
 김에스터 목사는 "하늘을 향한 꿈과 그리움"라는 제목의 인사말씀을 통해 개신교수도원수도회를 소개하고 "개신교수도원 영성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라고 마무리했다.



개신교수도원 수도회 창립 11주년 기념예배가 열렸다.



뉴욕선교대회 개최식 참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뉴욕교협 뉴욕선교대회 개최

"뉴욕을 선교도시로" 를 주제로 21개국 35명의 선교사 및 강사참가

뉴욕선교대회가 "뉴욕을 선교도시로"라는 주제로 지난 5월 26일 목요일부터 29일 주일 까지 총 4일간의 일정으로 뉴욕 장로교회(김학진 목사)에서 개최됐다. 뉴욕선교대회는 48회기 뉴욕교협(회장 김희복 목사)의 주최로 기도회 및 다양한 행사들을 통하여 준비되어왔다. 모든 준비과정의 결실로서 기대했던 수보다 많은 총 35명의 선교사와 사모, 강사들이 가졌다. 참가 선교사들의 국가는 총 21개국으로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태국, 몽골, 콜롬비아, 불가리아,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아이티, 유대인, 인도, 엘살바도르, 일본, 캄보디아, 에콰도르, 말레이시아, 과테말라, 아프가니스탄 등 세계 각국에서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진행해 온 선교사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선교사들의 현장 사역 보고와 간증들을 통하여 어려운 선교지의 환경과 낯선 문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선교지에서 얼마나 귀하고 능력 있게 임하며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가를 생생히 전하였다. 집회 주 강사로 김용의 선교사,

강사로 김남수 목사, 고석희 목사가 새벽, 오후, 개회 및 폐회 집회 가운데 메시지를 전했고, 각 집회 가운데 선교사들의 간증 시간이 있어 현지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교지의 상황을 보고 받을 수 있었다. 특히 28일 토요일 오전에는 각 나라 선교 방을 따로 준비하여 참가자들이 관심 있는 선교사들의 방으로 이동하여 선교사들을 직접 대면하며, 더욱 자세한 선교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주 강사로 말씀을 전한 김용의 선교사는 폐회 집회에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은 선교사들만이 있는 것이 아닌 평신도들에게도 예외 없이 주어진다"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명령대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힘쓰자"라 강조하며 선교에 힘을 쏟을 것을 모든 회중들에게 선교에 대한 도전을 주었다. 한편 뉴욕장로교회(김학진 목사)는 장소 및 모든 식사와 선물을 선교사들에게 제공하는 등 이번 선교 대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했다.
 (김재상 기자)



뉴욕 우드사이드장로교회를 담임하다 러시아선교사로 헌신해온 김바울 목사

김바울 선교사, 우크라이나 키이우로 출발

"전쟁터에서 고통당하는 제자 목회자들과 사역자 도와야"

뉴욕 우드사이드장로교회 담임으로 사역하다 선교의 뜻을 품고 러시아 선교사로 헌신해 온 김바울 목사(KAPC 소속)는 현지에서 있는 제자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위험에 처해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크라이나 키이우로 3일 폴란드를 거쳐 들어갔다.
 팔순을 훌쩍 넘긴 김바울 목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우크라이나 선교를 시작했으나 최근 발발한 러시아의 침공으로 발이 묶였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제자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눈에 밝힌다.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최선을 다해 돕고 싶다 빨리 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러시아인들의 모습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신앙과 자유와 행복과 소망을 송두리째 하소서" 라고 마무리했다.

째 강도질당한 상태였다. 그들은 죽어가고 있었고, 모습 또한 처참했다. 경제공황으로 그들의 삶은 궁핍했다.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상황을 30여년 전 러시아 상황과 동일하다"며 "과거에 러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역시 도움받아야 할 실정"이라고 전했다.
 김바울 목사는 현재 건강이 열려있는 상태이다. 그는 과거 약성 헬약임을 앓았다. 선교지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사역을 내려놓고 워싱턴 DC로 돌아와서 보니 재발되어 있었다고 말하는 그는 "선교사로서 끝이 아닌데 귀국하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번 방문 역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여정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하며 기도를 부탁했다.
 김 목사는 1991년경 소련이 개방정책을 결정하며 현재 러시아로 탈바꿈할 당시 담임목회를 사임하고 러시아 선교사로 지원, 출국한 바 있으며 러시아 선교사로 활동할 당시에 창단한 '러시아전사함장단'은 미주를 비롯하여 여러 곳을 순회하며 현재까지도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정리: 이성자 기자)

NYU Langone Health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 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40 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 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Next Church, Next Worship” 목회자 세미나

남가주 목회자들 한자리에 모여 ‘올라인사역’ 의 중요성 소개

지난 5월 16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MiCA (Missional Church Alliance, 이하 미카)와 미주복음방송의 공동 주최로 미주복음방송 에너하이 본사 1층 공개홀에서 2022 목회자 세미나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팬데믹 이후로 3년 만에 개최된 목회자세미나는 ‘김병삼목사와 함께하는 ‘Next Church, Next Worship’ 라는 주제로 만나교회담임, 김병삼목사를 특별강사로 초청하여 진행 되었다. 금번 세미나는 ‘1부: 예배에 대하여’ 와 ‘2부: 설교에 대하여’ 라는 부제로 세미나가 진행되었으며 각 강의에 이어서 MiCA 소속목회자들(미성대학교 이상훈 총장, 동양선교교회 김지훈 목사, 씨드교회 권혁민 목사, 동부사랑의교회 우영화 목사, LA온누리교회 이정엽 목사, 토렌스조은교회 김우준 목사, 선한정지교회 송병주 목사) 중심으로 패널 토의를 가졌다. 1부는 김병삼 목사의 저서인 ‘올라인 교회’에서 다룬 주제들을 가지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균형점을 찾고 아우르는 올라인사역의 중요성과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2부는 목회자들에게 있어 예배와

사역의 중요성과 본질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이번에는 총32개 교회에서 약60명의 목회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오찬을 나누며 그동안 모이지 못했던 미주지역의 목회자들이 화합 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병삼 목사의 목회자 세미나의 강 내용은 추후 미주복음방송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어 많은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제공한다. 참여교회 : ANC온누리교회, LA온누리교회, NEXT 사랑의교회, 가스펠교회, 나성서남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나성한미교회, 남가주동신교회, 남가주새소망교회, 뉴송교회, 동부사랑의교회, 동양선교회, 디사이플교회, 라가나다아름다운교회, 미라클랜드 침례교회, 미라클포인트교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새한교회, 샌디에고 소망교회, 샌디에고 한빛교회, 선한목자교회, 선한정지교회, 씨드교회,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오렌지중앙교회, 유니온교회, 제자들과교회, 주백성교회, 종현선교회, 토렌스조은교회, 도론토 큰빛교회, 하늘기쁨의교회.

(기사제공: 미주복음방송)



한미연합회 제2회 온라인 청소년 모의유엔대회 참가자들

한미연합회 제2회 온라인 청소년 모의유엔대회 개최

차세대 글로벌리더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소중한 경험

한미연합회(KAC, 대표 유니스 송)는 지난 5월18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제2회 한미연합회 온라인 청소년 모의유엔(Model United Nations, 이하 “MUN”) 대회’를 개최했다. 한미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KAC MUN 프로그램에 소속된 학생부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행사 전반을 준비하여 실시되었으며, 재외동포재단, 강드림재단, 김용환 재단, Dwight Stuart Youth Fund와 SoCalGas에서 후원하여 미래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발걸음에 함께 했다. KAC MUN 학생들은 위기(Crisis) 위원회와 특수(Specialized) 위원회 총 2개의 위원회 중 하나에 소속되어 유엔 회원국가를 대표하는 대사 혹은 각자 맡은 캐릭터의 입장을 대변해 열린 토론을 하고 의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올 해 대회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제 분쟁 해결 방안 △신력쟁탈을 둘러싼 가상 그리스도 신들의 갈등 심화 쟁점과 해결방안이 의제로 선정되었다. 최이든(Ethan Choi, 체퍼럴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사무총장을 맡고 7명의 학생부원들이 의정단을 맡아 전체 대회를 이끌었고, 이날 참가자들에게는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베스트 리서치상’ 등이 수여되었다. 본 대회 최우수상은 티모시 주(Timothy Joo, 12학년)와 제이미 임(Jamie Lim, 11학년)학생

이 받았고 베스트 리서치상은 오드리 배 (Audrey Bae, 10학년)와 리사 김 (Lisa Kim, 11학년) 학생이 수상했다. KAC MUN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소피아 신 선생님은 “이번 한미연합회 모의유엔 대회는 지난 4개월 동안 학생부원들이 의제 선정 과정부터 대사단 보고서 검토, 간접적 회의의 진행, 위원회 총괄 등의 업무 이행을 직접 해보면서 국제기구 활동에 대한 폭넓은 공부를 했고, 다양한 의견을 조율해 결의안을 쓰고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문제 해결력과 협동심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리라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한미연합회 유니스 송대표는 “KAC MUN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국제 이슈를 다루며 국제적 안목을 키우고 차세대 글로벌리더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소중한 경험을 했을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차세대 리더로서 성장하고 커뮤니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한미연합회 모의유엔의 참가는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4학년 학생까지 가능하며, 2022-2023 KAC MUN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7월 중순부터 전화 (213) 365-5999나 info@kacla.org로 연락하면 된다.

(기사제공: 한미연합회)

서부교계 게시판

제26회 에피포도예술상 공모

에피포도 예술과 문학(대표 백승철 목사)이 주최하는 제26회 에피포도예술상 작품 공모가 진행중에 있다. 공모는 오는 6월 30일까지 마감이며, 수상 작품집 출판기념과 시상식은 7월 중에 거행하게 된다. 공모분야는 문학 전 장르, 신인·기성등단 작가를 구분해 시(3-5편), 평론(1작품) 소설(1작품), 그 외(2작품), 그림(3작품), 사진(10작품), 음악(작사, 작곡), 번역 시(한국어 또는 영어 작품을 번역, 3작품), Youth문학 전 장르 신인상(초등학교-고등학교 재학생) 등의 작품을 모집한다. 작품보낼 곳은 Epipodo Art & Literature/2907 N. Cottonwood St #11 Orange, CA 92865, USA. 이며 가능하면 이메일로 접수(us-aep@hanmail.net)를 권장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www.epipodo.com를 참조하면 된다.

▲ 접수 및 문의: usaep@hanmail.net, (714)907-74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교육부 총괄 디렉터 청빙

토렌스제일장로교회(담임 고창훈 목사)에서 교육부 총괄 디렉터 목사(전도사)를 청빙한다. 담당 사역은 교회 모든 교육부(영유아부,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를 총괄적으로 계획, 운영, 목양하며 고등부를 담당할 목회자(풀타임) 혹은 고등부를 담당할 목회자(파트타임)이다. △지원자격은 교회 교육에 대한 은사와 비전이 있으며 이중 언어가 능숙한(영어와 한국어로 설교 및 상담) 자, 미국 거주 및 취업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자, 공인된 정규 신학대학원 M.Div를 졸업하고 안수 받은 목사(풀타임 only) 파트타임의 경우 신학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전도사이다. △제출 서류는 이력서, 자기 소개서 (신앙 간증 및 가족 소개 포함), 추천서(2부), 영어 설교 영상 2편, 신학대학원 M.Div 졸업장 or 재학증 사본(pdf 파일로 첨부)이다. 모든 서류는 이메일로 제출(PDF로 첨부)해야 한다.

▲ 문의 및 서류 접수: tfpcpcusa@hotmail.com

상향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PCUSA 소속 상향복음장로교회는 뜨거운 영혼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강한 영적 지도력과 체험을 통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교우들로 이끌어 주실 담임 목회자님을 청빙한다. △자격은 정규신학대학원 (Master of Divinity 학위취득)이상 학위를 소지 한 담임목사 혹은 부목사님으로 5년 이상 시무한 자, 미장로교회(PCUSA)소속 또는 PCUSA 가입이 가능한 한국어와 영어로 설교와 소통이 가능하며, 미국체류와 고용에 결격이 없는 자이다. △제출서류는 목회철학 및 비전, 신앙여정 및 체험, 본인 및 가족 소개서를 영어와 한글로 작성, 추천서 2통과 추천인의 연락처, 최종학위 사본, 목사안수 증명서 사본, 최근 6개월내 설교 동영상 2개 또는 관련web-link이다. 제출 마감일은 6월30일까지.

이메일 gnkcsf@gmail.com이다.

▲ 문의: 김영신 장로 ykimtaccpa@yahoo.com, (415) 488-7192

UMC 갈팩연회 코리언 코커스 총회

연합감리교 가주태평양연회 한인교회협의회(코리언 코커스, 회장 김낙인 목사) 정기 총회가 오는 6월 16일(목) 오전 11시 남가주 주님의 교회(김낙인 목사 시무)에서 열린다.

▲ 문의: (626)965-9191



김병삼 목사 초청 목회자 세미나가 미주복음방송서 열렸다



성령애국집회 참석한 공화당 후보들과 관계자들

캘리포니아 미주한인공화당 주최 성령애국집회

“하나님을 모르면 자신을 알 수 없어,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캘리포니아 미주한인공화당(위원장 이우호 목사) 주최, 미주한인역사 120년 만에 첫 캘리포니아 공화당후보초청 기도회가 성령애국집회로 함께 열고 하나님께 예배와 후보자를 위한 기도회로 성황리에 진행됐다.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에 합동예배와 2부에 후보자 연설시간을 가졌다. 캘리포니아 미주한인공화당 위원장 이우호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 개최기도 박성녀박사(명예위원장)와 설교 조현영목사, 환영사에 41지구 공화당위원장 미셀마티네즈가 순서를 맡았다. 모든 연사들이 강단에 서서, 한 사람 한 사람 후보 연설자를 지원하는 가운데, 짧은 시간 감동적 연설을 통해 청중들에게 큰 환호를 받았다. 특별히 열리 검찰총장은 캘리포니아는 범죄천국으로 영망진창이라고 비판했다. 950불 이하로 도적질한 자를 처벌하지 않고 마약범죄자들의 운상이 되고 최근 3개의 감옥소가 철폐되어 죄수들을 수용할 수 없게 되어 석방되고, 죄인들이 도피할 수 있는 장소들이 도처에 만들어져 범죄 천국이 되고 있다고 맹렬히 비판하며 자신이 법무장관이 되면 시민들이 자녀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캘리포니아를 만들 것이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우호

목사는 모든 후보들을 초청,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것을 요청하여, 후보들이 강단에 올라와 무릎 꿇은 가운데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안수기도를 가지며 공의와 정직한 정치인들이 되기를 기도했다. 통성기도 후 대표기도에 Curtis Hiebert 박사, 조현영 목사, Peter Chow 목사가 순서를 맡았다. 폐회사에 이우호 목사는 약 10분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신을 알 수 없으며,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지도 모르는 자들이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정치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선포했다. 이날 15명의 공화당후보들이 참석하였다. △주지사: 제니 레이, △법무장관: 에릭 얼리, △재무장관: 잭 게레로, △브라이언 스미 LA 슈퍼바이저, △조지 양 가주교육감, △에릭 칭 연방하원 38지구, △그렉 레스 연방하원 40지구, △패트릭 김슨 연방하원, △헬렌 드리 연방하원 28지구, △미치 클레멘스 가주 상원 30지구, △제시카 마티네즈 가주 하원 46지구, △라울오티즈 가주 하원 64지구, △유수연 가주하원 67지구, △마이크 맥하운 가주하원 30지구

(기사제공: 미주한인공화당)



소망소사이어티에서 주최한 치매돌봄 전문인교육을 마친 후 소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소망 소사이어티 치매 돌봄 전문인 교육 성황

‘치매’ 본인과 가족들에게 큰 부담과 마음에 깊은 상흔을 남겨

소망 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는 지난 5월 18일(수) 오전 9시부터 오후 5까지 사이프레스에 위치한 소망홀에서 제7회 치매 돌봄 전문인 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치매의 정의와 진단, 기억성 치매와 비가역성 치매, 증상들과 진행과정, 예방법과 이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교육했다. 강사는 최경철(소망 소사이어티 사무총장), 남궁수진(소망케어교실 담당 팀장)으로 특히 지금까지 영어로 된 교재를 사용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이번 교육부터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맞는 한국어 교재가 자체 제작되어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과 간병인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교육할 수 있게 되었다. 노인 셋중 한 명이 치매로 사망하지만 아직 치료약이 없는 치매, 발병 후 10-20년간 투병하여 본인과 가족들에게 큰 부담과 마음에 깊은 상흔을

남기는 치매에 대한 교육과 준비가 더 넓게 확산되고, 더 깊게 이해될 필요가 있음을 절실히 보여주는 교육이었다. 교육비는 150달러였고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겐 수료증이 전달되었다. 소망 소사이어티에서는 치매예방교실 Youtube채널(소망 소사이어티로 검색)과 소망케어교실(매주 수요일 애틀랜타, 매주 목요일 LA)을 운영하고 있다.

▲ 문의: (562)977-4580, somang@somangsociety.org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목회자 아버지학교 15기 수료생들과 가족과 봉사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박세현 목사)

제15기 미주 목회자 아버지 학교 12명 수료

‘아버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시 영적 지도자

남가주 지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목회자 아버지 학교는 박세현 목사, 국윤권 목사, 이정엽 목사, 권준 목사가 강사로 나서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남성 △아버지의 영성 △아버지의 사명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코비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몇차례 개설을 연기했다가, 이번에 LA 온누리교회의 적극적인 후원과 지지로 15기를 개설하여 대면으로 12명이 수료하게 되었다. 목회자 아버지 학교 15기 진행되었던 성요셉 목사는 “성경적 아버지의 역할을 통해 가정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시 영적 지도자

를 깨닫고 가정의 연합과 하나님을 배우는 매우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목회자 아버지학교는 2003년에 1기가 개설되어(목회자 대상으로는 전 세계에서 처음), 올해 15기를 개설하여 대면으로 12명이나 수료하게 되어서, 20년 동안 424명의 목회자(목사, 선교사, 전도사)들이 목회자 아버지학교를 수료했다.

목회자 아버지학교 15기 동기회장에 서보천 목사, 부회장 장현석 목사, 총무 송재봉 목사가 선출되어서 앞으로 함께 봉사하기를 다짐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제26차 미주복음주의 장로교회 총회

(1면에서 계속)

한편 총회 첫날 신원규 목사 사회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부총회장 박찬준 장로(홀리톤영락교회)가 성경봉독 했으며 신원규 목사(좋은마음교회/총회장)가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 16:13-20)’라는 제목

으로 설교했으며 지용덕 목사(미주양곡교회 담임)가 축도했다. 이어 민승기 목사(갈보리새생명교회) 집례로 열린 2부 성찬식은 김동식 장로(성서장로교회)가 기도했으며 민승기 목사가 ‘성찬과 공동체(요 6:52-59)’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분병과

분잔을 한 후 김재연 목사가 축도했다. 둘째 날 오전 11시 전모세 총회장 사회로 열린 폐회예배는 김장희 장로(좋은마음교회)가 성경봉독을 했으며 지용덕 목사가 ‘왜 우리는 안될까?(막 9:28-29)’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날 예배는 장광훈 목사가 축도했다.

(박준호 기자)

‘잃어버린’ 대면 수련회 3년 만에 재개

코로나로 망가진 예배와 우울감이 해소되길

한국대학생선교회(CCC)와 학생신앙운동(SFC), 한국기독교학생회(IVF) 등 대학생 선교단체가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여름수련회를 개최한다. 오랜만에 열리는 대면 수련회에 참가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CCC는 다음 달 27일부터 29일까지 ‘Loving GOD Loving myself’(막 8:35)를 주제로 현장 집회와 지구별 수련회를 병행해 온·오프라인 통합 수련회를 개최한다. 현장 집회는 충남 공주시 애터미 아웃비전홀에서 진행되며 전국 지구가 하루씩 정해진 요일에 맞춰 참석한다. 지난 6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29일 기준, 등록 인원은 5000명을 넘어섰다.

CCC는 수련회 개최 소식을 SNS에서 활발히 알리며 눈길을 끌고 있다. 유튜브에 올랐던 ‘야~ 우리 여름수련회 가져~!’ ‘MBTI별 여름수련회 끼시는 법’ 두 영상은 조회 수가 수천 회를 넘었고 인스타그램에는 포스터와 수련회 티셔츠 사진이 게재돼 참가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SFC는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경북 포항시 한동대학교에서 ‘제49회 전국 SFC 대학생대회’를 개최한다. ‘너희는 내 백성



을 위로하라’(사 40:1)를 주제로 ‘성경강해’ ‘개혁신앙아카데미’를 비롯해 야외 프로그램인 ‘SFC 운동장’ 등이 진행된다. SFC 공경민(42) 전국대학사역부 총무는 “3년 만에 대면 수련회로 열리는 만큼 기도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코로나로 망가진 예배와 우울감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VF도 지방회별 오프라인 여름수련회를 준비 중이다. IVF는 서울 3개 지회를 포함해 전국 18개 지회가 있다. 각 지회 수련회 일정은 인스타그램 검색창에 ‘IVF 지방회명’을 입력해 확인할 수 있다. 북서울지회는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경기도 양주시 예담원에서 ‘Sing Again’을 주제로 열린다.

IVF 북서울지회 문성현(25) 리더는 “현재까지 100여명이 등록했고 대면 여름수련회가 은혜의 장이 되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높다”고 밝혔다.

기독교대학인회(ESF)와 예수전도단(YWAM)도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각각 전주대학교와 대전 월문산기도원에서 오프라인 수련회를 개최한다.

웨슬리신약성경주석 출판 기념 학술제 열려

웨슬리언교회협의회(대표회장 박동찬 목사)와 한국웨슬리학회(회장장 이후정 박사)가 5월 29일 경기도 일산광림교회(박동찬 목사)에서 웨슬리신약성경주석 번역본 출판기념 학술제를 열었다.

번역 후기를 발표한 박장훈 서울신대 교수는 “웨슬리는 신앙생활을 구원의 길로 보았고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강조했다”고 말했다며 김영택 성결대 교수는 “웨슬리는 하나님의 법

을 도덕법과 의식법으로 구분할 수 있게 했고 하나님 사랑의 보편성을 일깨워줬다”고 평가했다.

이날 옹광석 감신대 교수가 논문을 발표했으며 테드 캠벨 미국 SMU 교수가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박동찬 대표회장은 “이번 학술제가 웨슬리의 조직신학과 성서적 토대 위에서 교회 부흥을 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WCBA · WAKB 총회

기독교 언론의 사명 다할 것

세계한인기독교방송협회(WCBA 회장·GOODTV 대표이사 김명진)가 지난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제2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WCBA는 전 세계한인 기독교 방송들의 연합체로 58개의 회원사가 활동 중이다.

개막 감사 예배에서 설교에 나선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는 “교회를 살리는 것이 기독교 방송과 언론의 사명”이라며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일을 위해서 복음을 곳곳이 지키고 말씀을 굳건히 붙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2부 행사로 진행된 개막식에서 WCBA 이영훈 이사장(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지나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방송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며 “하나님께서는 위기가 아닌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만큼 WCBA 회원

사들이 선교 역사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기독교한국침례회 고명진 총회장은 “여러 미디어 플랫폼에서 방송이 활성화되며 1인 콘텐츠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며 “성경적 가치와 기독교적 세계관이 흔들리는 시대에 기독교 방송을 통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충분히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CBS 김진오 사장은 “CBS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은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양질의 좋은 콘텐츠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WCBA는 이날 이사장 이영훈 목사에게 특별 공로패를, 언더우드 대학교 윤석준 총장에

게 감사의 꽃다발과 선물을 전달했다.

지난 5월 25일에는 WCBA 총회와 제12차 세계한인방송협회(WAKB) 총회가 함께 진행됐다. 20여 개국 58개 회원사가 참석한 총회에서는 재정보고와 감사보고, 안전 심의와 사업 계획과 다양한 현황 보고 등이 이뤄졌다.

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된 김명진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미디어의 역할과 콘텐츠의 영향력은 매우 중요해졌다”며 “우리의 사역이 선교를 넘어 한류 전파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특강도 진행됐다. 강연자로 나선 한국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은 ‘심검과 나눔의 사명, 미디어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조 회장은 “방송 사역은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도구”라며 방송 선교사역의 책임을 강조했다.

“차별금지법 강력히 반대”

성소수자 특혜는 여성·아동 인권 심각하게 침해할 것

차별금지법(차금법)이 제정되면 여성과 아동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성시민단체(세바)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기복 이봉화)은 지난 5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이 문계 삼은 건 차금법이 ‘소수자의 인권 보호’라는 이름으로 여성과 아동의 안전, 사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짓밟고 여성에게 주어진 기회를 빼앗을 것이라 믿는다. 이들은 “차별을 금지하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처럼 보이는 차금법(평등법)을 왜 반대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여성들이 차금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소수자라 불리는 소위 ‘퀴어’들에게 특혜를 줌으로써 오히려 여성의 인권이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차금법이 통과된 국가에서 남성이었다면 성전환자들이 여성 운동경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여성 운동

선수들이 설 자리를 잃은 사례를 들었다. 성명에서는 “단지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특혜를 제공하고 특별히 배려하는 것은 결국 남성과 여성을 중심으로 구별된 사회 모든 영역의 질서를 근간부터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차금법은 개인의 자의적인 성별 선택에도 여성의 영역을 멋대로 침범해도 여성들이 절대 반대할 수 없게 하는 ‘여성차별법’이라고 비판했다.

차금법이 제정되면 성전환 수술 없이도 자신을 여성이라

생각하는 남성의 여성 전용시설 출입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는 아동의 인권 침해와도 연결된다. 일례로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한 후보는 학교 내 성별 구분 없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차금법은 사랑하는 소중한 자녀들이, 딸들이 성폭력에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아동인권유린법’”이라고 비판하고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들이 탐과 피로 물려준 소중한 여성 인권을 우리의 딸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고자 한다. 차금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제정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만난 교계 지도자, 무슨 메시지 전했나

종교계의 헌신과 노력이 큰 힘이 되었다

한국교회 연합기관 대표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기후 위기와 한반도 평화 등 당면한 이슈에 바른 해결책을 찾아 나갈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5월 2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청사에 7대 종단 지도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기독교에서는 류영모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과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가 참석했다.

류 대표회장은 “전방위적 갈등 시대에 극단적 진영 논리에 휩싸이지 말고 사회를 치유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며 “자유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고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일과 사학법 재개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 문제를 거론하며 “아이를 낳게 될 MZ세대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그들을 ‘행복한 딸’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무는 기후 위기와 신 냉전 시대 국제질서의 위기를 헤쳐나갈 것을 당부했다. 그는 “새 정부가 기후 위기 시대를 경제 자본의 관점이 아니라 생명 자본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원전 르네상스를 추구하는 에너지 정책이나 반 생태적 개발 정책이 탄소 중립 실현에 합당한 것인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했다.



또 “분단이 굳어진 한반도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길이 통일을 지향하며 남과 북의 평화적 공존을 모색하는 자주적 평화 외교의 길인지를 살피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기는 데 종교계의 헌신과 노력이 큰 힘이 됐다”며 “종교계가 소외된 이웃을 보듬는 일에 애써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더 큰 역할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국 신앙 열정 식어… 다음세대·난민지역 시급”

한국도 영적 에너지 확장을 위해 중요한 때

세계적인 선교전략가이자 선교동원인 아르헨티나 출신 루이스 부시 박사의 메시지는 명쾌했다. 현재 한국교회는 서방의 교회처럼 기독교 역사의 뿌리가 깊지 않은 데다 신앙의 열정도 다소 식었다고 진단했다. 다음세대 육성 등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서방 교회처럼 될 수 있다는 경고도 했다.

부시 박사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 지역을 선교 타깃으로 삼는 ‘10/40창(window)’을 창시했고 다음세대 선교운동 확산을 위한 ‘4/14창’ 운동을 만든 사람이다.

그는 26일 서울 용산구 조이 어스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교회 선교에 대한 과거와 미래 방향을 이야기했다. 30일 광주광역시 새만기에서 열리는 ‘실크로드 포럼’ 주강사로 초청돼 한국을 찾았다. 이 포럼은 중앙아시아에서 30년간 선교한 선교사들의 모임이다.

부시 박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교회의 선교 역사부터 이야기했다. 그는 “뉴욕타임스의 일



본 기사가 한국 선교를 ‘쉬운 곳으로 가지 않고 어려운 곳으로 간다’고 쓴 적이 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한국을 축복하시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며 “10/40창 운동의 선두에 선 이들이 한국 선교사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 선교의 미래 과제로 난민 사역과 다음세대 육성을 꼽았다. 부시 박사는 “성경에도 하나님은 난민을 보고 계신다는 표현이 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난민에 관한 관심이 커졌는데 그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한국교회 리더로 성장하려면 교회와 가족이 힘써야 한다”며 “부모는 아이가 축복 속에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간담회가 끝나고 부시 박사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많은 한국인 선교사들이 해외에서 사역하고 있음에도 전 세계 교회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한국교회의 책임을 물었다. 한국선교연구원 에 따르면 2021년 12월 현재 한국교회는 167개국에 2만 221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그는 “지난 50년간 세계 선교 역사를 정리하던 중 한국이 빠져 있다는 걸 알았다. 이는 해외에선 한국의 선교 자료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에 당부의 말을 전했다. “국제무대에서 한국 선교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선교지에서도 한국 선교사들은 고립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열심히 사역은 하는데 ‘자기 왕국’을 세운다는 오해를 삽니다. 편견을 깨기 위한 소통이 절실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 선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희망을 이야기했다. 그는 “비서방 국가의 교회들이 다양한 형태로 성장하고 있고 영적 에너지가 확장되고 있는 것도 보인다”며 “하나님이 그들을 선교로 사용하고 계신다. 한국도 영적 에너지 확장을 위해 중요한 때”라고 전했다.

교회, 4대보험 가입 시도…

‘들쭉날쭉’ 기준에 혼란

다수 교회가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지역마다 다른 가입 기준에 혼란을 겪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목회자를 가입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갖고 있지만 근로복지공단 내 65개 지역본부 및 지사는 목회자 가입 여부를 제각각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자립교회 중에는 종교인 과세 혜택을 받지 않고 일 반사업장 지위로 세금을 내는 교회도 많다. 이런 교회 중에는 사역자 처우 개선을 위해 기존 국민연금·건강보험 외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시도하거나 고려하는 교회가 근래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 교회들은 가입을 처리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로부터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있다.

소속 부목사 등 사역자들이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A교회는 지난해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가입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A교회 관계자는 “노동인권 강화 등 사회적 분위기 따라 지난해 가입을 시도했다”며 “우리는 사역자들이 사실상 담임목사의 관리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판단했지만 공단 측은 부목사 등 사역자들은 종교

활동을 하는 성직자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목회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용·산재 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그 근거로 2003년 공단 측의 ‘성직자의 근로자성 여부’ 질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회신 내용을 든다. 고용노동부는 여기에서 “목사 등은 종교 단체에서 종교 활동을 할 뿐 근로계약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 교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로부터 목회자의 고용·산재 보험 가입 허가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부평구 P교회, 경기도 이천 Q교회, 전북 김제 R교회 등이다. 한 교회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이 불가 방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실제 가입 기준은 들쭉날쭉해 보인다. 공단본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청년 선교를 위해 웹드라마 ‘신앙의 참견’ 제작

기독교대안관리회(기감) 교육국과 미래교육콘텐츠개발원은 청년 선교를 위해 웹드라마를 제작한다고 5월 29일 밝혔다. 기독교 공감 로맨스 코미디라는 슬로건이 붙은 드라마의 제목은

여러 지사들이 일반사업장으로 등록된 교회 목사들의 4대 보험 가입을 받아주는 것 같다”고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보험 업무를 위탁 받아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편입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사에서 공단본부로 관련 질의를 하면 목회자는 가입이 안 된다는 답변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지역본부나 지사에서 교회의 여러 상황 등을 보고 가입을 허락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에 목회자 가입 여부에 대해 다시 질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예술인, 보험설계사 등의 가입을 허용한 데 이어 지난 1월부터 대리운전기사 등으로 가입 범위를 넓혔다. 법원도 전임사역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고 있다. 대안예수교장로회 통합 세계대책위원장을 역임한 김진호 세무사는 “근로소득세를 내고 담임목사의 지휘를 받는 부교역자라면 고용·산재보험 대상이 돼야 한다”고 했다.

‘신앙의 참견’(포스터)으로 16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유튜브 통해 공개된다. 총 7회 분량이며 1화당 5분 내외로 만들어졌다.

선교의 창 (194)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손흥민 선수를 통해 본 차세대 선교사 양성

현대는 3S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Screen, Sex, Sports를 일컫는다. 스포츠에는 수많은 종목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것이 축구이다. 축구 월드컵은 단일 종목이지만 올림픽에 맞는 규모를 자랑한다. 월드컵 대회 때는 전 세계가 들쭉인다. 특히 유럽과 남미 등에서 축구는 가히 종교에 가깝다. 금년에 손흥민은 영국 프리미어 리그(English Premier League; EPL)에서 득점왕이 되어 골든부츠(Golden Boots)를 받았다. 그는 페널티 킥 없이 순도 높은 23골을 넣었다. 손 선수는 2020년에도 FIFA 풋볼 어워즈(Awards)에서 세계 최고의 골인 푸스카스(Puskás)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하여튼 그는 이제 유럽 전역은 물론 아시아에서도 사회적·문화적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도 5월 26일, 첫 국무회의에서 그에게 체육계의 최고 영예인 청룡장 상훈 결정을 내렸다. 어떻게 아시아인이 텃세 심한 영국에서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그를 보면서 선교계에도 인재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본다. 많은 수보다 1당 백, 천 아니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차세대 선교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

1. 영재 발굴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아무리 운동에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늦게 시작하면 꽃을 피울 수 없다. 손 선수는 “결을 수 있게 되

자마자 공을 쳤다”라고 회상했다. 만일 손흥민이 고교시절부터 축구를 시작했다면 오늘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 한인 세계선교의 큰 문제는 차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영재 발굴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대개가 청년시절 선교 헌신을 하고 그들 중 극소수만이 선교사로 나온다. 보통 그 나이가 30대 중반이다. 대학 졸업하고 군대, 신학교를 거쳐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이미 청년의 기백이 쇠한 후가 된다. 미주 권은 군대 기간이 없지만 저마다 학자금(LOAN)의 멍에에 걸려있어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선교계에 청년 헌신자들이 가뭄에 콩나물 나듯 찾아보기 어렵다. 타 문화권

2. 기본기 훈련

“실력, 기술, 사람 됨됨이 등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이는 손 선수의 아버지인 손웅정 씨의 생활철학이다. 아직 뼈와 근육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유소년은 기초 체력훈련과 기본기를 다지는데 집중해야 한다. 한테 현실은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다. 불행하게도 잠재력 있는 선수들이 성적주의에 매몰된 감독들의 소모품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손웅정 씨는 아들을

로 남을 섬기며 팀워크를 중시하는 생활훈련이다. 영성과 생활훈련이 안 되고 성품이 과격하면 선교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 선교사 사회도 스포츠 못지않게 요구되는 인물은 기초훈련이 탄탄한 자이다.

3. 해외 유학

옛말에 “말을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보내야 한다고 했다. 큰 물에서 놀아야 큰 물고기가 된다는 것이다. 만일 손 선수가 강원도 시골의 동네 축구장을 전전하며 살아왔다면 오늘날처럼 대성할 수 있었을까? 손흥민은 1992년생이다. 기본기로 다져진 그는 2008년부터 독일 함부르크 SV 유스 팀에 1년간 유학을 하고 돌아왔다. 2009년 8월 한국으로 돌아온 후 10월에 개막한 FIFA U-17 월드컵에 출전하여 3골을 터트리며 한국을 8강으로 이끌었다. 그해 11월 함부르크의 정식 유소년팀

우리 속담에 “미쳐야 미친다.”라는 말이 있다. 한 목표를 두고 올인(All In) 할 때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 인생은 한 가지만 붙잡고 집착해도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손 선수는 축구 프로 세계에 들어와서도 오직 일념으로 전념하고 있다. 보통 이름 있는 선수들은 20대 초반에 애인들이 있거나 일찍 결혼을 한다. 그러면 시간과 정력을 분산하기 마련이다. 이에 비해 손 선수는 결혼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싱글로 있으며 사생활이 깨끗하다. “결혼하면 아내나 아이들이 최우선이 되겠조. 그러면 축구는 차선이 됩니다. 저는 축구를 하고 있는 동안은 다른 것이 넘버 원이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해요.” 이말 속에 그의 인생철학이 녹아 있다. 선교사도 일단 파송을 받으면 사역에 집중해야 한다. 축구선수는 골로 말을 해야 되듯 선교사는 사역으로 말을 해야 한다. 그것은 All In을 요

나야 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선성이 있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고전 4:15). 한 마디로 철학과 경륜이 있는 아버지 같은 스승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누구보다 잘 알며 사랑하고 책임지기 때문이다. 손 선수에게 그의 아버지가 최고의 코치요 스승이었다. 다행히도 1세대 한인 선교사들 중에는 신앙과 실력, 성품 면에서 훌륭한 분들이 많다. 이제 1세대 선교사들이 해야 할 주된 임무는 자기 사역 바통을 이를 차세대 지도자들에게 체계적인 훈련과 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것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듯이 아버지 같은 멘토가 되어 핵심 일꾼을 키우는 것이다.

맺음 말

2020년에 문제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사를 바탕으로 손흥민의 국내외 경제적 유발 효과가 무려 “1조 9885억 원”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그렇다면 지금은 2조 원이 넘는 것이다. 이제 그의 가치는 한 나라가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확장되고 있는 브랜드다. 손 선수를 보면서 우리 선교계에도 탁월한 차세대 리더들이 나왔으면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차세대 선교 후보들을 발굴하고 장기적 안목으로 사람을 키웠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한인 1세 선교사들 중에는 사역과 이론을 겸비한 덕망 있는 인물들이 적지 않다. 이제는 수평적 사역 확장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차세대 일꾼들을 세우는데 1세대 교사들의 역할이 요구된다. 오늘도 손흥민 선수는 그라운드에서 열정과 실력과 겸손과 해맑은 웃음으로 자랑스러운 한인의 한인 됨을 드러내고 있다.

jrsong007@hanmail.net

손흥민은 축구선수로서 World Class 반열에 올랐다.
모든 성공은 긴 세월 동안 씨 뿌리고 피땀 흘려 가꾼 결과이다.
선교계에도 멀리 내다보고 손 선수 같은 차세대 지도자를 키워야 한다.

운동부에 보내지 않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직접 가르쳤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리프팅(Ball lifting) 등 기본기 훈련에만 집중했으며 축구의 즐거움을 깨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그는 아들에게 양발을 사용하도록 특수 훈련을 시켰다.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 청소하는 것을 몸에 베게 하였고 좋은 심성을 위해 독서를 강조하였다. 이렇게 손 선수는 코치 아버지의 지도력 속에서 체력, 생활, 지성, 인성 등 두루 갖춘 선수로 거듭날 수 있었다. 그러면 선교사 양성에서 기본기란 무엇인가? 어려서부터 기도와 말씀에 기초한 철저한 제자훈련이다. 나아가 늘 배우는 자세

를 기약을 체결하였다. 그는 이때부터 습득한 독일어와 논리적 표현 능력은 큰 자산이 됐다고 고백했다. 차세대 선교 후보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타 문화 습득과 언어는 한인 선교사가 넘어야 할 큰 벽이다. 따라서 교회나 단체는 키울만한 인재들은 발굴하고 가능한 일찍 정통 코스 훈련을 받게 해야 한다. 한인 교회는 좋은 일꾼을 찾는 데 혈안이 돼 있으면서도 정작 사람 키우는데 너무 인색하다. 역량 있는 차세대 지도자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구한다. 그런 점에서 한인 세계 선교는 좀 자숙할 필요가 있다. 선교사들이 필드를 떠나 여기 저기 싸돌아다니면 은혜가 안 된다. 일평생 지구촌 한 구석에서 산화되는 재(Ash)처럼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들이 그리워지는 때이다. 후방의 교회들과 단체들도 선교사들이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오라 가라” 달달 복지 말아야 한다.

5. 훌륭한 스승

청출어람(靑出於藍)은 푸른색이 쪽빛보다 짙듯이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나다는 뜻이다. 학생은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이 복이다. 어떤 지도자를 만

4. 올인(All In)

한다. 그런 점에서 한인 세계 선교는 좀 자숙할 필요가 있다. 선교사들이 필드를 떠나 여기 저기 싸돌아다니면 은혜가 안 된다. 일평생 지구촌 한 구석에서 산화되는 재(Ash)처럼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들이 그리워지는 때이다. 후방의 교회들과 단체들도 선교사들이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오라 가라” 달달 복지 말아야 한다.



인문학으로 읽는 바울의 생애 ②9 헤롯 가문을 소개합니다(1)

바울이 베스도 총독에게 자신의 무죄를 설명할 때 베스도 총독은 설득을 당했습니다. 베스도는 자신의 판단을 보증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아그립바 2세와 그의 아내이자 그의 여동생 베니게에게 묻습니다. 아그립바 2세와 베니게도 바울의 결백을 인정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아그립바 2세와 베니게의 증조할아버지가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헤롯(대)왕입니다.

신약 성경에 여러 헤롯왕이 등장합니다. 모두 헤롯 대왕(혹 헤롯1세)의 후손들입니다. 여기서 헤롯 대왕은 동방박사들을 만나는 헤롯 왕입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에 분노하여 베들레헴과 근방의 유아 학살을 주도했던 헤롯입니다. 그의 막강한 권력, 헤롯 왕조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유대인 출신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붙인 이름이 헤롯 대왕(Herod the great)입니다. 통상 헤롯 가문을 소개할 때 그를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공관복음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헤롯 가문 사람들을 정리해 봅니다. 헤롯 대왕에 이어서 유대지역 분할해서 통치했던 그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헤롯 가문의 둘째 사람 아켈라오(마 2:22)입니다. 그

가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져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으로 이주합니다. 다음 헤롯 가문의 세 번째 인물은 분봉왕 헤롯(마 14:1, 눅 3:1, 3:19, 눅 9:7, 행 13:1)입니다. 그를 ‘헤롯 왕’(막 6:14)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왕’(마 14:9)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그냥 ‘헤롯’(눅 9:9, 13:31, 23:7, 행 4:27)이라고 부릅니다. 헤롯 가문의 네 번째 사람은 이두래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인 빌립입니다. 그가 가이사라 빌립보를 건설한 사람입니다.

헤롯 가문 다섯 번째가 헤롯 왕의 동생 빌립입니다. 그는 헤로디아의 첫 남편(마 14:3, 막 6:17)입니다. 헤롯 가문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람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로디아(마 14:3, 막 6:17, 눅 3:19)와 그녀의 딸(마 14:6,

막 6:22)이고, 헤롯 가문 여덟 번째 인물이 사도 야고보를 죽인 ‘헤롯 왕’(행 12:1~2), 아그립바 1세입니다. 헤롯 가문에 아홉 번째 사람은 벨릭스 총독의 아내 드루실라(행 24:24)이고, 열 번째와 열한 번째는 베스도와 함께 바울을 심문한 아그립바왕(아그립바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틈타 헤롯 아버지 안티파테르가 유대 지역 패권을 장악합니다.

당시 유대 지역은 하스몬 왕조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내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동생인 아리스토틀로스(Aristobulus) 2세에게 대제사장 자리를 빼앗긴 히르카누스 2세는 절치부

권력에 힘입어 유대 역사 전면에 등장합니다.

히르카누스 2세가 아리스토틀로스 2세를 누르고 제사장을 차지했지만 하스몬 왕조의 권력투쟁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을 잃었던 아리스토틀로스 2세의 아들이었던 안티고노스는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던 파르티아(Parthia)왕조의 도움을 받아 권력 찬탈을 도모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에서 안티고노스가 이깁니다. 그는 삼촌인 히르카누스가 다시는 대제사장이 되지 못하도록 귀를 자르고 바빌론으로 귀양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전투에 안티파테르의 아들들도 히르카누스 2세 편에서 싸웠습니다. 패배하는 과정에서 안티파테르의 아들 파사

시였던 안티고노스를 몰아내야 했기에 헤롯을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헤롯은 2년간의 전쟁 끝에 안티고노스와 파르티아 세력을 몰아냅니다. 헤롯은 안티고노스와 다수의 사두개파 귀족들을 처형했습니다. 진정한 유대 왕으로 등극한 헤롯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해까지 유대 지방을 통치합니다.

헤롯 대왕은 정치적으로 승승장구하며 세력을 점점 넓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 가지 치명적인 약점으로 늘 불안에 떨었습니다. 첫째 이두메인이기 때문에 유대 왕으로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둘째 헤롯은 왕위 찬탈과정에서 흘린 피 때문에 배신을 두려워하였다.

아그립바 2세와 베니게는 아그립바 1세의 자녀들입니다. 소위 근친상간 부부였습니다. 아그립바 1세는 야고보를 처형한 왕입니다. 아그립바 1세의 할아버지는 세례 요한을 참수한 헤롯 안디바의 손자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자기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베들레헴 지역 아기들을 대량 학살한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지난 주에 살았던 벨릭스 총독의 둘째 아내 드루실라가 아그립바 2세와 베니게의 친남매입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몇대에 걸쳐서 유대지역의 실권을 행사했던 헤롯 가문의 어두운 그림자가 보입니다.

chap1207@hotmail.com

헤롯의 두 가지 치명적인 약점

- ① 이두메인이기 때문에 유대 왕으로 정통성이 없었다
- ② 왕위 찬탈과정에서 흘린 피 때문에 배신을 두려워하였다

심하며 권력 되찾기에 골몰하였습니다. 로마 폼페이 지지에 힘입어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테르는 히르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자신이 팔레스틴 지역의 실세가 됩니다.

로마와 안티파테르의 지원으로 대제사장의 지위를 얻은 히르카누스 2세는 꼭두각시였고, 안티파테르는 실권을 쥔 총독이 되었습니다. 안티파테르는 B.C 47년에 아들 헤롯을 갈릴리지역 군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헤롯 대왕은 아버지

엘은 체포되어 갈릴리에서 자살하였고, 헤롯은 로마로 도망을 갑니다. 로마로 도망을 갔던 헤롯은 카이사르에게 도움을 청하였고 카이사르가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원로원에서부터 유대 지방의 ‘왕’으로 임명됩니다.

헤롯이 유대 왕으로 임명을 받았지만, 안티고노스가 이미 유대지방 왕이었습니다. 이듬해인 왕이었던 헤롯은 로마의 지원을 받아 정권 탈환을 위한 전쟁을 합니다. 로마는 속적이었던 파르티아와 눈에 가

매일가정예배

월 첫째 인(계6:1-2)찬366장

구속 경륜을 상징하는 일곱인 중, 어린양이 첫째 인을 떠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 복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사자 모양을 한 생물이 오라고 명함은 구속이 절대 승리를 가져옴을 알리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중심인 복음 운동은 지금도 그 목적을 향하여 진행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싸우시는 활동이 보였습니다. 여기 보인 말 탄 자의 상징은 복음 운동을 주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실제 활동을 보입니다.

화 둘째 인(계6:3-4)찬383장

여기 나온 둘째 상징,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복음 운동과 어떤 관계입니까? 첫째, 그것은 역사상 온 세계에 일어난 모든 전쟁을 가리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구속은 환난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전쟁도 예외는 아닙니다. 둘째, 전쟁을 통해 복음은 온 세상에 증거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성취는 고난을 통하여 기이하게 이루어집니다.

수 셋째 인(계6:5-6)찬370장

셋째 인을 떠신 어린양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첫째, 여기 나온 검은 말은 재난과 흉년을 상징합니다. 구속은 전쟁 뿐 아니라 재난 같은 흑암의 세력을 이용하여 이루어짐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복음 운동의 세계화는 경제적인 가난의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었음을 역사가 증거합니다. 둘째, 배고픈 자에게 복음에 대한 문이 쉽게 열립니다. 네 생

목 넷째 인(계6:7-8)찬262장

청량색 말 탄 자로 보여진 극도의 혼란, 전쟁, 재난 천재지변 등이 복음 운동을 위하여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환난을 통한 구속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사망이 지배하는 곳일지라도 어린양의 지혜는 그 속에서도 그의 경륜을 이루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주께서 길을 이끄시니 얼마

금 다섯째 인(계6:9-11)찬375장

구속성취를 암시하는 어린양의 인을 떼는 순차적인 행위는 점점 구속에 초점을 맞춥니다. 첫째, 순교 당한 영혼들을 통하여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어린양에 대한 믿음을 죽기까지 사랑한 성도들의 참믿음을 통해 그의 경륜은 성취됨을 강조합니다. 둘째, 그들의 신원하는 참된 간구는 구속성취에 쓰임 받는 도구가 되었

토 여섯째 인(계6:12-17)찬167장

그 어린양의 진노의 날로 표현된 심판은 구속성취에 어떤 일을 보여줍니까? 첫째, 자연계의 큰 재난이 심판에 사용되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이 휘말리는 현상은 극도의 천재지변을 생각하게 합니다. 구속의 성취는 만물이 어린양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서게 하는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둘째, 두려운 심판입니다. 15절에 나온 땅의 거인들이 그 진노를 피하려는 노력은 전무후무한 지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다. 하나님의 구속은 오직 그리스도가 시작하시고, 이끄시고 마치십니다. 그 속에 포함된 우리는 구속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 복음은 영원한 승리를 보장합니다. 여기, 이기고 이긴 자란 말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환난의 바람이 몰려와도 복음을 믿는 우리는 언제나 어린양의 승리를 누리기로 보장되었으니 그를 따라 영전에 적극적으로 임합니다.

다. 셋째, 어린양이 보내신 성령은 이런 혼란 속에서도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리무중의 환경에서도 어린양은 자신의 지혜로 그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온 세상에 보냄 받은 어린양의 일곱 영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구속을 완전히 이루십니다. 나의 고난의 터널에까지 오셔서 친히 일하시는 성령의 지혜로 살아갑시다.

물 속에 나온 재난의 현상은 구속성취의 중요한 수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셋째, 택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그런 혼란 중에서도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할 수 없게 하시는 택한 자를 통한 구속의 완성을 보장하십니다. 하나님 보호의 약속을 붙들고 어린양의 인도에 성실하게 따라갑시다.

나 감사합니까? 둘째, 어린양의 구속은 절대 흑암에서 절대 광명을 만듭니다. 창조 때에 보인 방법이 구속에도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반복되는 세상에서 어린양은 자신의 그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사망으로 뒤덮인 우리 시대에 어린양에게만 소망을 둡시다.

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의 마침을 위하여 순교의 제물같은 기도를 찾으십니다. 셋째, 흰옷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세우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의의 증표를 주셨습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얻은 의를 주장하며 큰 확신 속에서 살아갑시다.

육의 공포를 생각하게 합니다. 죄에 대한 어린양의 진노 앞에 설 자란 아무도 없습니다. 셋째, 심판을 걸쳐 구속이 완성됩니다. 어린양의 구원이 이런 심판을 이 땅에 나타낸다는 빨리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려는 것인데 이 진노를 벗어날 자는 어린양에게 속한 자들만입니다. 이 진노에서 벗어난 자가 된 것을 감사하며 더 늦기 전에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음악 이야기(13)



윤임상 교수
(월드미선대학교대학원)

필립 폴 블리스(Philip Paul Bliss)와 찬송가 속죄하신 구세주를

미국의 교회사를 보면 역사상 크리스천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가 1860-1880년 사이였습니다. 이때가 미국의 제2차 대각성부흥운동(The Second Great Awakening Movement)이 지나고 3차 부흥운동의 전성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미국의 중부와 동부를 중심으로 복음의 불길을 주도했던 인물은 드와이트 레이먼 무디(Dwight Lyman Moody, 1837-1899)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음악의 효용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항상 찬양으로 표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라 생키(Ira David Sankey 1840-1908)와 함께 평생을 복음 전도자의 동반자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디는 복음을 설교하고 생키는 복음을 찬양한다(Moody is preaching of gospel and Sankey is the singing of gospel)" 라는 정신을 갖고 복음의 불길을 강력하게 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또 한 명의 중요한 복음 찬양전도자가 있었습

니다. 남은 필립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I will sing of my redeemer(속죄하신 구세주를)의 가사가 된 글이었습니다. 이것을 무디 제단에서 제임스 맥그레나한(James McGranahan 1840-1907)에게 곡을 쓰게 했고, 이 찬송이 뉴욕의 에디션 레코딩회사에 의해 미국에서 최초로 녹음된 찬송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필립은 삶의 우선순위를 너무 잘 알고 있던 참된 음악을 소유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사랑의 진정성을 알고 그 사랑을 세상에서 실천하며 복음을 찬양으로 표현하려는 열정을 갖고 살았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6:9에 보면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05편의 소재가 되었던 다윗의 찬양관이고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같이 다윗처럼 필립도 하나님을 향한 바른 찬양관을 갖고

필립의 고백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니다. 38세라는 짧은 생애를 살았던 필립 폴 블리스(Philip Paul Bliss 1838-1876)였습니다.

1874년 그의 나이 36세에 무디 선교회 "Win Souls"의 풀타임 복음 전도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때 그가 무디 선생님의 요청으로 호라티오 스페포드(Horatio Gates Spafford, 1828-1888)의 고백 시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를 작곡하게 된 것입니다. 무디 선생님은 처음에 생키에게 작곡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생키는 이 소중한 내용을 자신보다는 음악성이 훨씬 뛰어난 필립이 곡을 쓰는 것이 좋겠다고 양보해서 그가 곡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필립은 그의 뛰어난 음악성과 깊은 복음 신앙을 소유한 음악인으로 무기와 생키에게 인정을 받으며 전도유망했던 교회 음악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풀타임 임명을 받던지 2년 후인 1876년 12월 29일 당시 38살의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생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인한 소망의 놀라운 기사를 그의 생애 동안 음악으로 표현했고 그것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증명했던 것이 바로 오하이오 아슈테블라(Ashtabula) 철교 사건입니다. 필립 자신은 살아남았지만, 아내를 구출하기 위해 다시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간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인격을 변화시킬 능력과 의향이 있으시나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놓을 때만 가능하게 하십니다. 필립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을 위해 전부를 바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그 살신성인의 정신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싶습니다. 지옥 행벌을 면하기 위함이고, 천국에 가기 위함이 목적이 되길 보다 더 궁극적이고 진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를 찬양하며 그것을 자랑하며, 또 그 사랑을 실천하며 작하게, 의롭게 살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가기를 소원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 갖는 바른 신앙관이기 때문입니다.

필립의 고백입니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이 찬양이 우리 가슴에 각인되어 진실된 마음과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울려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iyoan@wm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역 - 대형 피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파라과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감사하며 평강의 소식을 전합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예술학교와 신학교가 개학을 하여 수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방문으로 그동안 없었던 주민 등록증을 만들고 건강 보험도 만들어 건강검진을 하고 올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1. 2022년 은혜 중에 개학식을 하고 70-80% 새로운 교사들이 바뀌면서 좋은 크리스천 선생님이 많이 신규 채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욱 전도하는 학교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부활절에는 많은 학생들이 여행을 갔지만 그래도 많은 학부형들과 학생들이 연극과 각종 부활절 행사를

통해 회개와 기쁨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6번째 개척한 사랑과 평화교회 속한 교인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일날 예배는 3시인데 2시부터 많은 어린이들이 몰려와서 예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요. 어린이들은 달란트 시장놀이도 했습니다. 매주 출석 달란트, 암송 달란트, 새 친구 전도 달란트, 숙제 달란트 한아름씩 상품을 가지고 가며 입이 반달같이 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귀여웠습니다. 지난 부활절에는 전교인들 가정에서 코로나로 고생하는데 영양 보충하라고 달걀 한판씩 나누어 드렸습니다. 모두가 감사할 뿐입니다.

2. 장로교 신학대학은 지난 4



예술학교 단체 사진

월 1일~2일 신입생 입학 기념 특별 부흥 사경회를 "성경은 나의 캐논"이란 주제로 집회를 열고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사님들은 저녁 식사로, 예배 후 간식으로 섬기며 기쁨과 즐거운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신학교 개학을 하면서 달력을 새로 만들고 소독 기계도 새로 구입하여 오는 성도들을 잘 맞이

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파라과이는 남미의 중심지인데 학사 석사 과정과 복음주의 신학대학연맹에서 박사까지 취득할 수 있는 코스가 제정되어 있으니 참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훌륭한 학자 교수들과 진솔한 제자들이 많이 나오도록 열정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3. 앞으로의 기도 제목을 나



부활절 행사, 달란트 시상과 주일학교에 참여한 아이들

누기 원합니다.

1) 1997-2000년까지 지은 건물이라 낡아서 보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2) 6개 교회를 관리하다 보니 교회마다 요즘 전자제품을 많이 요구하는데 우선 교회에 Preoject 가 필요한 상태인데 구입하도록

3) 복음적인 학교 선생님이

교육도 하지만 전도 대상 어린이가 많아지도록

4) 속히 코로나 19가 전멸되어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도 체육도 하도록

임마누엘! 하나님 사랑한 나라 파라과이에서 정금태 이복래 선교사 드립니다

정금태/이복래 선교사 amor1004@hanmail.net

선교 편지

캄보디아

샬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하며 인사드립니다.

4월은 햇빛이 짙고 더운 날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감사하고 평안한 한 달이었습니다. 이달은 캄보디아에서 가장 큰 명절인 새해가 있어서 이미 가정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등 3월 말부터 대이동이 시작되고, 송크란 크마에 라고 서로에게 물 뿌리는 물축제와 마을마다 대표들을 뽑아 배 타고 노 젓는 시합 등 시엠립에서 매년 열리는 축제를 2년 동안 국가에서 막았다가 허락을 해주어 타주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또 관광객들을 맞이 위해 한 달 내내 시엠립 시내가 떠들썩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황폐해져 버린 이 도시가 위드 코로나로 좀 더 활성화되어 많은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학부님들의 삶의 터전과 생활도 나아져 가길 소망해 봅니다.

이미 아이들이 부모님과 고향으로 가기도 해서 많은 아이들이 빠져있지만 새해 전 스포츠 데이로, 터널 통과, 수박 먹기, 물 나르기, 물풍선, 줄다리기, 실내에서 여러 릴레이 게임 등 하면서 간식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사들 또한 시엠립이 고향이 아닌 선생

님이 세 분이 계셔서 약 6개월 만에 휴가를 다녀오기도 하고, 저희도 모처럼 가족끼리 쉬게 되어 재충전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교 전기 승압 및 명의 변경 - 저희가 처음 학교를 세웠을 때 주변에 집이 하나도 없고, 저희 교회까지 전기가 안 들어와서 마을 입구 전봇대에서 교회까지 연결할 전깃줄을 사고 전봇대 기둥을 중간중간 세워서 전기를 끌어다가 교회까지 선을 연결하였는데, 그 이후 여러 번 수리를 하였음에도 이상하게 주변 집들은 멀쩡한데 저희 교회 전기가 자주 끊기고, 고장도 나고, 문제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번엔 비가 하루 종일 온 날 전봇대에 붙어있던 두꺼비 집에 물이 들어갔는지 문제가 생겨 여러번 고쳤고, 전기승압과 명의 변경은 그동안 해결해야 하는 풀리지 못한 숙제였는데, 이번에 전기 승압 신청도 허가받고 (국가적으로 전기 생산이 되지 않고 주변국가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늘 전기가 부족해 전기공사에서 나와서 필요한 전기만큼만 딱 줍니다), 명의 변경도 이번에 저희 법인으로 이전되어서, 그동안 풀치 아프게 해결되지 않았고 꼬여있던 일들이 하나씩 풀어지고 해결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달이었습니다.

Sok Sina 선생님 회계 전문 학교 시작 - 캄보디아가 세금을 전산으로 처리하기 시작하

면서 모든 엔지오, 법인, 비즈니스 등에게 세금을 매달, 매달 철저히 보고시키고 매년 audit을 합니다. 저희도 외부 회계사를 고용하여 매달 영수증 제출과 함께 보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매달, 매년 해야만 하는 회계보고를 위해 저희 선생님 중 한 명을 파견(?) 공부를 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고등부 출신이자 2월부터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는 속 시나 선생님이 주중 오전에 전문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오후에 다시 교회로 와서 오후반 아이들을 가르치기로 하였습니다. 풀타임 교사로 일할 때보다 월급을 적게 받지만 앞으로 약 3년간만 꾸준히 공부하고 졸업하면 저희 교회 출신이자 스텝 중에 전문인으로 저희 센터의 회계 일들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중고등부 방과 후 학생들 중, 코로나 기간 동안 줌으로 진행되던 공립학교 수업을 하지 않고 여러 명이 학교를 그만두고 식당으로, 앙코르와트로 출퇴근하며 잡초 뽑는 일꾼으로, 생수공장에서,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남학생들도 여럿 학교를 그만두고 정비소, 공사장에서 일하지만 그만둔 학생들 대다수가 가정에 보탬이 되어야하는 장년인 여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형편과 상황이 다 안타깝지만 꽤 오랫동안 연락이 두절된 학

생이 있었습니다. 나름 남편과 제가 아끼고 잘 챙겨주던, 약 3년 전에 캄보디아 바닷가로 청소녀 여를 수련회를 처음 갈 때 모든 아이들에게 성경 쓰기를 시켰는데, 그중 처음으로 로마서를 아주 예쁜 글씨로 다 써서 가져온 우리 스테이린, 킴덤 미션 때 간중도 하며 예수님 믿는 것을 담대히 선포하던 학생이 새해부터 연락이 안되다 갑자기 뜬금없이 주일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학생이 고등학교는 졸업하길 바라면서 저와 남편이 장학금을 조금씩 주었는데 엄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일을 못하시자 그 돈이 부족하여 다른 집 추수하는 거 도와주면서 여기저기 떠돌며 일하다가 왔습니다. 이제 11학년인데 교사들과도 연락이 안 되고 저희에게 인사도 없이 나간 아이가 섭섭하기도 하고 걱정도 됐지만, 몇 개월 만에 아무렇지 않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집나간 아이가 돌아왔듯 너무나 반가웠는데, 이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또 한번 감사하였습니다. 약 4년전 중고등부때 떠나 청년이 되어 돌아온 속산도 그렇고, 방과후 영어 수업에 나오다 교회도 왔는데, 어느 순간 중이 되겠다고 절에서 2년간만 먹고자고 하다 나와 또 교회에 오는 타이허웅, 지난 사역자가 나갔을 때 따라가 일년넘게 안오다 또 문득 다시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한 여러 명의 남학생들, 기



스포츠 데어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



오후반 3-4세반 찬양시간

말곳 없는, 힘든 아이들이 여기 저기 방황하다가 또 거부감 없이 돌아올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고,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주는 목사와 사모님이 있는곳, 많은 스텝들과 친구들이 편견 없이 반겨주고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는 이곳이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 임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

우리 벨엘 학교, 벨엘 교회,

모두가 그들의 모습과 상황 그대로 수용하고 기쁘히 여기고 사랑으로 섬겨가는 우리 교사들, 선교사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변화되고,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이 땅에서, 각자 서있는 곳에서 세워져 가길 오늘도 기도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일훈, 박수영 선교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2022년 제33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신학교 제33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함께하셔서 졸업생들을 축하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졸업예배는 실시간 온라인 동영상으로도 제공합니다 (Youtube:KAPCQ)

설교 : 흥귀표 목사(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장)

<p>일 시 : 2022년 6월 6일(월) 오후 7시</p> <p>장 소 : 퀸즈장로교회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p>연락처 : (718) 463-7163, (718) 886-4040</p>	<p>목회학 석사: 나일임, 박매자, 안진나, 허장길, 홍현숙, 김성애, 전일권</p> <p>기독교 교육학 석사: 문인숙</p> <p>선교학 석사: 이유숙</p> <p>신학사: 염승희</p>
--	--

학장 : 김성국 박사 **부이사장 :** 허경화 장로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인/터/뷰

미주복음주의장로교회 총회 신임총회장 전모세 목사

총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서로 섬기며 함께 총회를 이뤄가고파

“다음세대를 위해 1.5세와 2세 사역자들을 영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

미주복음주의장로교회 총회가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총회)를 세우리니(마 16:18)'라는 주제로 지난 23일과 24일 양일간 열렸다. 이 총회에서 총회장으로 선출된 전모세 목사(오렌지힐스교회 담임)를 서면을 통해 취임소감과 사역의 비전을 들어보았다.

▲총회장으로 당선을 축하드리며 총회장이 되신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총회장의 자리는 한편으로는 영광된 자리요 감사의 자리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난 책임을 요구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생각입니다. 그야말로 거룩한 부담감을 양어께에 매고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의 모여서 만들어진 곳인 만큼 더 큰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기에 우리주님의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며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총회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임기동안 총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요?

총회원들을 주님을 섬기듯이 최선을 다해 섬기려고 합니다. 우선 총회 마지막 일정을 총회소속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함께 힐링캠프를 3박4일간 실시했습니다. 캠프는 미서부 대표적인 4개 캐년(엔텔롭 캐년, 브라이스캐년, 자이

언캐년, 그랜드캐년)를 다녀왔습니다. 3박4일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사역자들의 간증과 사역소개, 그리고 기도제목을 나누며 힐링이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1년간 총회원들과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며 총회를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총회장 임기동안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님의 일꾼이 부족한 이때에 주님을 위해 순교의 정신을 가진 사역자들을 영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일들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섬세한 마음을 가져서 상처난 성도들을 치유할 수 있는

여성 목회자들을 영입하려고 합니다. 여성목사 영입은 18회 총회때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20회 총회 때 여성목회자들이 저희 총회에 총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성목사님들의 총회영입이 잘되지 않았었죠. 여성목사님들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 영향도 있었고요. 그러나 여성목회자분들에 대한 생각도 많이 열리게 되어서 아마

도 제 임기 동안 여성목사님들의 총회 회원가입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공공기관의 채플린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심 있는 목회자님을 교육, 훈련하여 지역사회를 섬기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 경찰청 해

의 공동 사무총장 및 세리프 국 라하브라 경찰서에서 채플린으로 섬김으로 채플린 사역자들을 배출하려고 합니다. 채플린 교육에 대해서는 아직 총회차원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제 임기 때 총회에서 채플린으로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습니다. 세번째는 다음세대를 위해 1.5세와 2세 사역자들을 영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남가주목사회 회장을 역임하신 샘



전모세 총회장

저희 총회는 비록 큰 총회는 아니지만 미주지역에서 건전하게 사역하시는 신실하신 목사님들이 세운 총회입니다. 또한 총회기간동안 두 번의 세미나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KAPC 개혁장로회 대학 총장

입니다. 내년에도 좋은 강사들을 초빙하여 은혜로운 총회를 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총회와 총회원들에 대한 바람을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바람은 우리 모든 총회원들이 한마음이 되는 총회,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존귀한 자들이 되어 서로 섬기는 모습이 되어 주님이 기뻐하는 총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총회장인 저부터 주님이 기뻐하시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총회원과 총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지요.

▲후배나 동역자들에게 소개할 목회철학을 말씀해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듯이 목회자는 주님의 말씀처럼 낮아져서 늘 섬기는 마음을 갖는것이 중요합니다
(박준호 기자)

주님을 위해 순교의 정신을 가진 사역자들의 영입
공공기관 채플린 사역자, 다음 세대 사역자 배출에 힘쓸 것
목회자는 주님의 말씀처럼 낮아져서 늘 섬기는 마음을 갖는 것

선교한국....

(7면에서 계속)

1927년 2월에 개최한 하와이 연회에서 하와이 선교부 감독 윌리엄 H. 프라이 목사가 1년 이상 결핵 요양소에서 요양한 박기홍이 건강을 회복하여 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보고했고, 하와이 연회는 그를 그가 담임목사로 섬겼던 마우이섬의 스프레클스빌 한인감리교회 권사로 파송했다. 그달

에 임준호는 작년에 이어 마우이섬 한인 구역 목사로 파송을 받아 위의 스프레클스빌 한인감리교회 담임목사가 되었다. 1928년 2월에도 박기홍은 마우이섬의 스프레클스빌 한인감리교회 권사로 파송받아 섬겼다. 한 해 동안 하와이 선교부로부터 900달러를 보조받아 지난 1년간 275달러를 지출했고, 사택 임대비로 120달러를 지출했으며, 세계 봉사 기금으로 100달러

를 헌금했다. 그는 1929년 2월에 이어 1930년 2월에도 본 교회의 권사로 파송받아 2,000달러에 해당한 예배당 건물과 대지를 관리했다. 1931년 2월에도 박기홍은 본 교회의 권사로 파송 받았다. 마우이섬 한인 구역에는 박기홍 이외에도 함호용, 강재우, 이환일, 문연찬, 김인경 등 7명의 권사가 있었다. 1932년 2월까지 1년간 어린이 18명이 유아세례를 받았고, 성인 3명이 세례

를 받았으며, 5명의 세례교인이 이명하여 등록하였다. 1933년 이후 박기홍은 하와이 연회록에서 찾을 수 없으나 스프레클스빌 한인감리교회에 출석했을 것이다. 본 교회 이윤호 전도사는 표표한 청년이었는데 가솔누이 목재회사 사무원으로 근무하며 교회에 대한 일이라면 몸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물질로도 남에게 뒤지지 않았는데 청년은 별로 없고 대부분이 6,

70 넘은 노인뿐인데 이들을 섬겨 칭송이 자자했다. 수년 전에 공부하기 위하여 도미한 박기홍의 아들 제임스(원태)가 1934년 7월에 귀가하여 연로한 부친을 홀로 두고 다시 떠나기가 어려워 사업을 하면서 부친을 섬겼다. 아내를 여윈 후 박기홍은 65세가 되던 1940년에도 연봉 540달러를 받으며 마우이섬 스프레클스빌에 있는 사랑수수밭에서 52주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

간작업을 하였다. 박기홍은 생일을 열하루 앞둔 1956년 8월 3일에 향년 84세에 마우이섬의 스프레클스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호놀룰루에 있는 누아누 기념 공원묘지에 안장됐다. 그의 2남 2녀 자녀인 제임스(원태), 피터, 헬렌 그리고 밀드러드는 아버지의 묘비에 '사랑하고 친절한 아버지'라고 새겼다.
amien.sohn@gmail.com

www.chpress.net

KCP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KAPC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KAPC Reformed Presbyterian University & Seminary

2022 학년도 Zoom 여름 특강

1978년에 설립되어 현재 1300여명의 목사 회원과 30여개의 노회, 그리고 650여개의 지교회를 산하에 둔 미주 지역 최대의 한인 교단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교단 직영 신학교인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2학년도 줌 여름특강을 실시합니다**

○ 과목명 : **“교회를 빛낸 설교자와 설교”**

○ 담당교수 : 오덕교박사 (Ph.D,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역사신학 교수)

○ 일시 : 2022년 6월 13-15일, 20-22일, 오후 7시-9시30분

○ 청강 환영 (청강비 100불)

오덕교박사 (Ph.D,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전총장, 몽골 울란바토르국립대학 총장 역임)

저서
『청교도와 교회 개혁』 (합신대학원출판부), 『장로교회사』 (합신대학원출판부), 『빈야드운동 무엇이 문제인가』 (교회와 신앙), 『종교개혁사』 (합신대학원출판부), 『청교도 이야기』 (합신대학원출판부), 『언덕 위의 도시: 청교도의 사회개혁 이상』 (합신대학원출판부), 『개혁신학과 한국교회』 (합신대학원 출판부) 등.

○ 과 목 명 : **“요한계시록 신학”**

○ 담당교수 : 이필찬 박사 (Ph.D, 전 한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교수; 현재 이필찬요한계시록연구원 소장)

○ 일 시 : 2022년 7월 11-13일, 18-20일, 오후 7시-9시30분

○ 청강 환영 (청강비 100불)

저서
『요한계시록 1-11장: 때가 가깝다』 (에스카톤), 『요한계시록 12-22장: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근간)(에스카톤),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서 유니온), 『신천지 요한계시록 해석 무엇이 문제인가』 (새물결플러스), 『백투에루살렘 무엇이 문제인가』 (새물결플러스)

*문의처: 김동진 학감 (626-675-8010) djkim3333@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직영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총장: 이정현박사 | 이사장: 양수철박사
154 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 310-749- 0577, 626-675- 8010